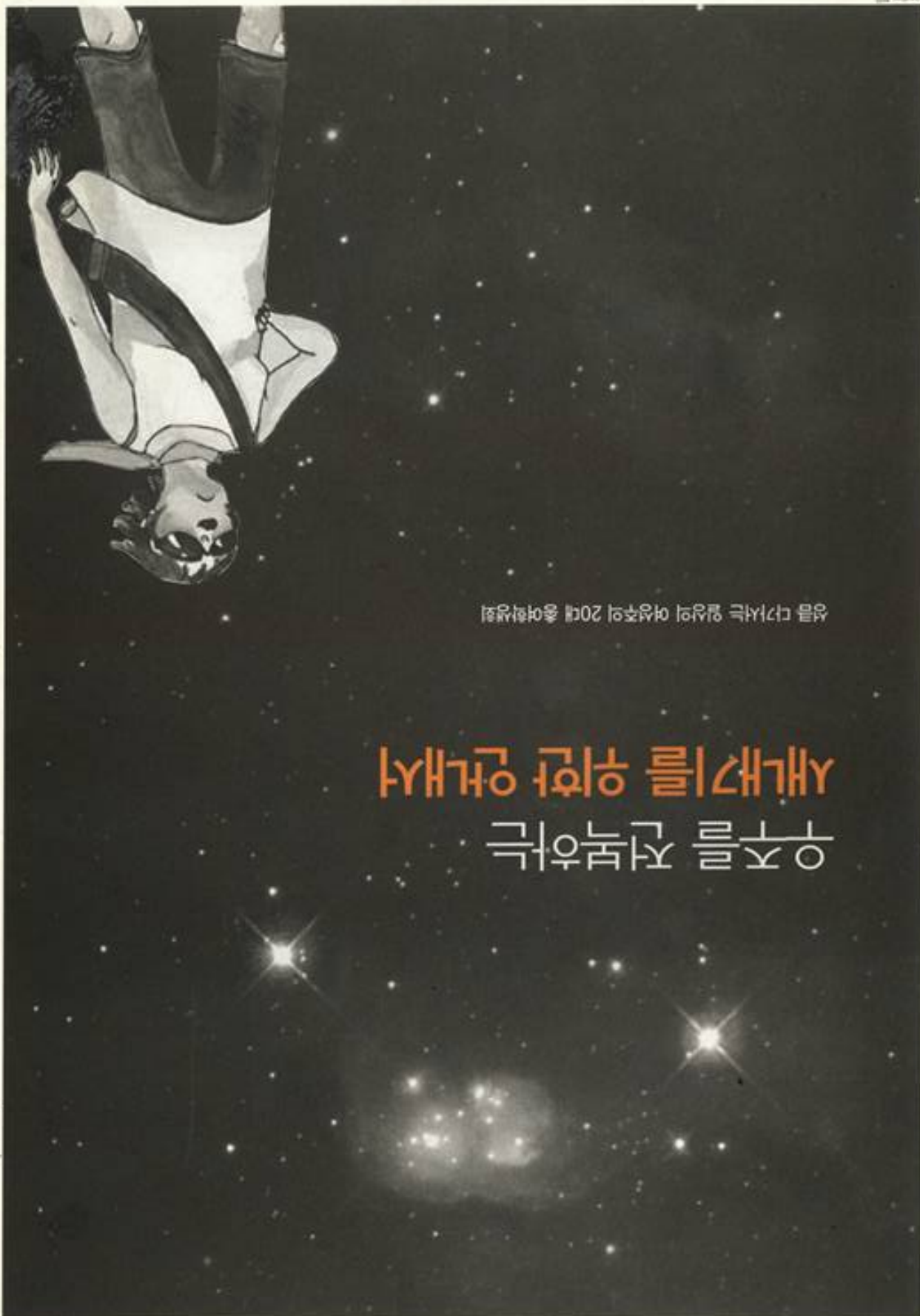




2008년 12월 20일 현재까지의 2008년 여성문제 관련 자료집

여성문제 관련 자료를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2008 힘을 내요, 스미스씨

2008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yeoyeon.cyworld.com

2008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2008

힘을 내요, 스미스씨
2008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CONTENTS

- 04 • 2008년을 맞이하여 시작하는 자치규약 이야기
- 06 • 대학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 10 • 처음 만나는 성폭력
- 12 • 스미스씨 이야기
- 14 • 성폭력 사건 지원 및 처리 과정

특집

- 16 • 춘곡을 돌아본다
- 17 • 문과대 철학8반 보자기 소모임에서 느꼈던 것들

단대이야기

- 18 • 법대
- 20 • 사회대
- 22 • 상대
- 23 • 이과대
- 24 • 여연자연 소개
- 25 • 성폭력 대처법



2008년을 맞이하여
시작하는

자치규약이야기

술술 새내기 맞이 기간이 다가온다. 각 단대와 반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인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고민들,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즐기고 싶은 활동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학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제 얼마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이 연세대학교라는 이 공간에 모일 것이다.

이렇듯 한데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들은 각기 다른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는 성평등 자치규약을 정하고 함께 지켜나가고 있다.

자치규약은 약속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성폭력적인 상황을 직면하지만, 피해자가 그것에 문제제기하거나 불편함을 드러낼 경우,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그로 인한 2차 가해는, 가해자의 시각으로 구성된 현재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그쳐 떨어두거나 무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일이 빈번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쫓기듯이 공동체를 등질 수 밖에 없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OT/새터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새터 반성폭력 내부규약'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한 해 내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확장되었다. 피해를 가중하고 피해자를 배제하는 현재의 성폭력 담론과,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폐단을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

다. 따라서 성평등 자치규약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주변인들의 관계맺음을 더 즐거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정한 자율적 성격의 규약인 것이다.

자치규약은 문제제기다

새로운 관점에서 성폭력을 서술하는 자치규약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자치규약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반발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성폭력 담론을 재구성하는 것은 지금까지 학습해온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문제제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반작용은 당연하다. 우리들이 당연한 남성 중심의 사회, 당연한 가부장제, 당연한 이성애중심주의와 그것으로 인한 권위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대학 내 공동체는 전사회적인 가부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번이나 나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권위주의가 선배로서의 강요와 후배로서의 복종을 정당화하여 성희롱을 가능하도록 했고, 성별 권력에 힘입은 남성 중심성이 강의실을 비롯한 학내 곳곳에서 환경적 성폭력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내몰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공동체 문화는 성폭력에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자는 움직임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막고 평등한 관계맺음을 저해하는 권력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성찰하도록 하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이다. 기존의 공동체와 그것이 인정하는 주류, 기득권을 가

진 사람들만이 공동체를 독점하는 현상을 넘어 다양한 주변적 존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의 경험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시작에서부터 누군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규약은 완결이 아닌, 시작이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우리의 공동체에 만연한 문제지점들에 이름을 붙여 문제임을 드러냄으로써, 가부장적인 대학 내 문화에 포괄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것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이 평등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현재의 문화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하는 것은 각각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치규약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치규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어떠한 지점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더욱 즐겁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치규약에서 발전한, 공동체 공동체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내부규약을 상상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치규약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함으로써 다채로운 장점을 발견해나갈 생활공동체를 더욱 많은 이들에게 편안한 공간,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by. 20대 총학생회 <봄을 누비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새터 反성폭력 내규 개정안

1. 목적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새터, 대동제, 농활, 연고제 등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칭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예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예 • 여성의 옷차림이나 늦은 귀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예 •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예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예 •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 • FM 및 각종 게임의 예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동성애혐오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기반이 된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가하는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규약을 정한다. 각 학내 공동체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고,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및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여 이성애중심적 커룰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새터 공연자리 등의 놀이자리에서 성소수자를 회화화하지 않는다.

2-3.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의무

-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새터, 현장 활동, 대동제 등 학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현장 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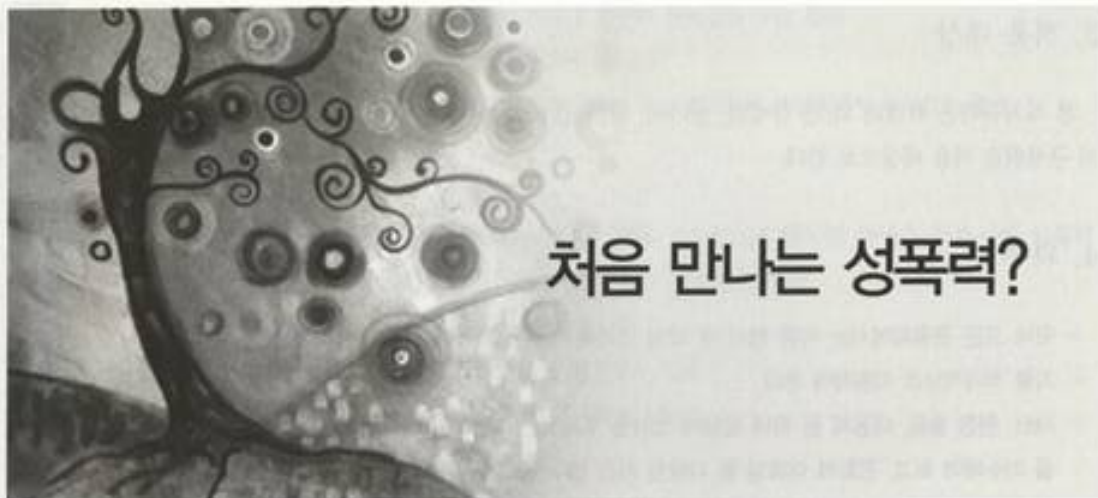
5.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反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식적 처리와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제 정 : 2000. 2. 9
- 1차 개정 : 2003. 1. 28
- 2차 개정 : 2006. 1. 21
- 3차 개정 : 2006. 9. 12



처음 만나는 성폭력?

과연 성폭력이란 무엇일까?

연세대학교의 자치규약에 쓰여 있는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성폭력의 의미와 사뭇 다른 것 처럼 느껴진다. 가해자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던 성폭력에 대한 관점은 일어난 피해자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 과거의 성폭력 개념과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의미 속에서도 피해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성폭력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과 합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상에 만연해 있으면서도 처음 만나는 것만 같은 '성폭력' 개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

기존 성폭력의 개념

여성이 자신의 이름 없이 '누군가의 아내'로 명명되는 것처럼 여성의 몸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성폭력은 한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여성의 정조가 침해된, 지배자로서 남성의 명예훼손 문제로 이야기되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성적인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고, 여성의 경험은 배제되었다. 이렇게 남성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성폭력 개념에서는 어떠한 동의도 없이 내 허리에 손을 얹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방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성폭력 사건이 '친밀함의 표현이었다.',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등 오로지 가해자 행동의 의도와 입장만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은 그냥 참아야 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아닌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앞에서 든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성폭력 개념은 일상에서 피해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과 불편함을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여성주의 운동을 통해 새로운 성폭력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지금 역시 이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의 '성폭력이란?'

학내의 성평등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성폭력으로 규

정하고 있다.

광의의 성폭력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정신적·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신체적, 물리적 성폭력을 비롯하여 언어적, 정신적인 부분 역시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자치규약은 그동안 물리적인 폭력만 성폭력으로 간주되면서 삭제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주체적인 목소리를 드러내는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토대로 성폭력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성폭력 개념에 대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의 성적행위에 대한 통제권과 개인이 성적이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한다. 이는 이제껏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과거 성폭력 개념의 한계에 문제제기를 하며 등장했고, 그 의의는 현재 역시 유효하다.

그러나 성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학습 받아 왔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입에 담은 것조차 비난받아 왔던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과 아동의 성적인 권리를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성적자기결정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현재 사회에 파다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여성의 정조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제기를 할 때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학내의 성평등 자치규약에서는 이 개념을 성폭력을 설명할 때에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변해야 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은 누군가의 경험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언어로, 피해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성폭력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현 사회의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를 인지하고, 남성의 언어와 경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매번 뒤집어 봐야 한다. 왜곡된 시선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기반으로, 과연 무엇이 성폭력이고 이것이 어떻게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지를 성찰했을 때 성폭력은 하나의 기준으로 확립화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게 되고, 성폭력에 대한 나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by_ 20대 총학생회 <몸을 누비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현 사회의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를 인지하고,
남성의 언어와 경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매번
뒤집어 봐야 한다.





스미스씨 이야기



형 사: 스미스씨,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주장하셨죠?

스미스: 네

형 사: 칼을 직접 보았습니까?

스미스: 아니요

형 사: 강도와 싸우고 저항하셨습니까?

스미스: 아니요

형 사: 왜 안했죠?

스미스: 그 사람은 칼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니다.

형 사: 그래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거군요.

스미스: 네

형 사: 소리를 질렀습니까?

스미스: 아니요

형 사: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도움을 얻기 위해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스미스: 저는 두려웠습니다.

형 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아니요

형 사: 이전에 그냥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네, 그런적 있긴 하죠.

형 사: 음... 그건 당신이 기꺼이 준건가요? 그건 그렇고 강도를 만나기 전 그날 당신은 어디서 저녁을 보냈죠?

스미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니다.

형 사: 술을 마신 상태라구요? 그러면 술값은 어떻게 지불했죠?

스미스: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형 사: 지갑 안에 돈이 얼마나 있었죠?

스미스: 50만원 정도요.

형 사: 꽤 많은 돈이군요.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갑에 있던 그 돈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글썽요, 아마 한 두 시간 동안 지갑을 밖에 내놓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거죠?

형 사: 당신은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그냥 준 적이 있었죠. 사실 그 자선 행위로 인해 당신은 명망을 얻었겠죠. 당신은 당신이 술값을 지불했다고 했죠. 당신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파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스미스: 들어보세요, 내가 원했다면...

형 사: 그건 그렇고 노상 강도에게 잡혀있던 게 맞죠?

스미스: 밤 11시쯤이요.

형 사: 밤 11시에 길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스미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니다.

형 사: 그냥 걷고 있었다구요? 너무 취해서 운전할 수 없었군요. 밤늦게 길가라를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을 테지요. 당신은 노상 강도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스미스: 노상강도를 당한다고는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니다.

형 사: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스미스: 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니다.

형 사: 갈바반 옷 말이죠?

스미스: 그래요,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난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형 사: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밤늦게 길가라를 걸어가 는 중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죠. 게다가 나는 돈이 많으니 내 돈을 빼앗아가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도록 바쁜 옷을 입었구요. 그렇지 않나요?

형 사: 우리가 다른 사항들에 대해 더 잘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노상강도를 당한 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미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밤길에 강도 털린 사람에게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는 아주 유사하지 않나요?

밤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왜 그 시간에 돈을 들고 그 길을 걸었다고 추궁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그 시간에 그 길을 걸으면서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았나, 일찍 일찍 다녔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들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도 않는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스미스씨가 어이없는 질문들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강도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도 그의 행위 자체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역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가해자의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함으로써 가해자를 옹호하고, 가해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에 그렇게 혼자 다니면 안된다, 그 시간에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시간에 성폭력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나, 가해자는 그때 술이 너무 취해있었다는 등의 질문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당연한 듯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스미스씨 이야기



이렇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와 2차 가해는 오로지 그 사건을 이제껏 비가시화 되었던, 주체가 아닌 타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언어로 다시 서술하고 재구성했을 때 변화할 수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말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자 말만 듣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차별적인 이 사회에서 남성들의 언어로만 서술되고 있는 성폭력 담론의 틀을 깨고, 그 사건을 당사자의 시선으로, 당사자의 언어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회가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남성적인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 까지도 남성들의 언어로 설명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연스럽게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이 사회가 남성들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한 사회의 시선으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을 숨겨야 했고,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늦은 밤 길을 걷던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 성별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차별주의다. 성폭력 사건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가해자의 언어로 사건을 서술하는 남성중심의 언어를 허물고, 그 위에 피해자의 언어로 사건을 새롭게 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by.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성폭력 사건 지원 및 처리 과정

성폭력 사건 지원 및 처리 과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한가

유독 성폭력 사건에서만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서술, 구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 설사 힘을 내어 경험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현 사회의 물이해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추궁을 하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성폭력을 잘못 이해하고 대응했을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자가 필수적이다. 학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 성폭력을 '민감한 개인' 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성문화의 문제임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피해자중심주의

우리는 지금까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구성되는 성폭력 사건들을 접해 오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학습 받아왔다.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의 의도와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사회의 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경험은 삭제된다. 게다가 가해자가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맥락이 비가시화 될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관계 역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피해자의 경험은 부정되는 성폭력에 대한 관점에 문제제기하고 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2차 가해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2차 가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성평등 자치규약에서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다수의 피해자들도 역시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경험하며 학습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지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반문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든가, 피해자에게 왜 그 곳에 있었느냐 등의 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려심과 안타까움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이미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묻게 되는 현 사회에서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이 막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 수동적인 피해자 상은 그저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일 뿐, 그렇게 획일화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 합부로 언급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경험을 부정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성차별적인 공동체의 성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고 처리했을 때, 이는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는 그릇된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그냥 나만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나의 불편함을 드러내면 분위기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은 공동체의 문제를 그냥 덮고 가는 것이다. 소외와 배제의 원리를 안고 있는 현재의 공동체 문화에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공동체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목소리들이 공동체 내부 곳곳에서 들릴 수 있도록 했을 때에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지원을 통해 서로 힘을 받고,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왔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학내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절차

1)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내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각의 단위에서 주체가 참여해야 함.
-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 단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함.
-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원보호와 주의가 필요하다.

2)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

- 과반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비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건 처리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 상담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사건 종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대로 가해자가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사건은 상담일지에만 기록으로 남음
- 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건처리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교수, 교직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 위원회에 사건 회부
- 각 사건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짐

※ 학내의 성폭력 상담실은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신고나 학생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학내 기관을 통한 해결은 피해자를 신중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써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by_ 20대 총학생회 <봄을 누비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 신입생 OT에서 '촌극'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다. 법대에는 모두 여섯 반이 있는데, 신입생 OT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모든 각 반 새내기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짧은 극을 만드는 것이었다. 서로가 어색하고, 처음 만나는 사이라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웠던 관계에서 '촌극'이라는 것 하나로, '촌극'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가 맘 흘려 준비하는 과정 그 하나로, 진정한 나와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신입생 OT에서나 새터와 같은 곳에서 '촌극'을 하는 단위는 참 많은 것 같다. 새내기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텐데, '촌극'이 이처럼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다양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곳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촌극'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오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

는 것들, 자신이 살아온 것들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화라는 것으로 어색했던 서로의 벽이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 '촌극'이라는 공연을 목표로 자신들이 무대에서 맘 흘려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펼쳐내고 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 또한 달라져 있다. 더 이상 눈으로만 봐왔던 그 사람이 아닌,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함께한 친구로 '촌극'이 끝난 뒤 새로 남겨져 있기에, 신입생 OT와 새터와 같은 곳에서 '촌극'이 빠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촌극'이 과연 '촌극'으로서의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 것일까? 모두가 가까워질 수 있는 '촌극'이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강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의 '촌극'을 보자면, '웃음'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극에 있어서 '웃음'이라는

것이 가미되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된다면, 그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촌극'이 된다.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촌극'들의 내용들을 보면 여성을 대상화하는 행위, 몸짓들이나 개인의 인격들을 비하하는 내용들, 우리 주위의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연세라는 이름의 학벌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내용들이 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웃음'이라는 명분하에 아무렇지 않게, '웃음'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를 통해 소통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 공동체로 인해 상처를 입고 소통을 단절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촌극'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연해지고 대중화 되어버린다면, '촌극'이 갖는 그 무수한 의미들이 퇴색되어버리는 것이다.

단순히 서로간의 친밀감을 유대하기 위해 '촌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표현하고, 모두가 공감하기 위한,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나와 나의 대화·이야기들로 인한 친밀감, 이 모든 것들이 '촌극'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단순히 코미디라는 것에서도 그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상징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촌극'이라는 것에서 '웃음'만이 있는 '촌극'이라면 그것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친밀감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이다. '촌극'이 어찌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학교를 다니며 매년 신입생 OT 새터 때 있는 '촌극'이 지겨운 것이 아닌, 매년 새롭게 기대 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의 '촌극'이어서가 아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가' 이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공간,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외치고 싶은 말들, 불편함이 없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유대,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난 뒤의 우리가 해냈다는 그 열정, 그것이 모두 담겨져 있는 '촌극'을 보고 싶다. '촌극'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 지지 않을 줄을 추억으로 가슴 속의 '우리는 말했다'라는 문구함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by_ 굿밤

보자기라는 여성주의 소모임을 예비학교를 통해서 처음 만났을 때는 구체성 없는 열정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였다. 그 당시 난 지성인으로서 사회현상을 좀 더 날카롭게 바라보고 정의감을 키우고자 하는 의욕에 넘쳐 있었기 때문에 여성주의를 공부한다는 보자기가 매력적으로 와 닿았었다. 그런데 내가 여성주의를 공부한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의외였나 보다. 부모님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넌 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 아니?"라고 하곤 했다. 성평등, 성해방이라는 정의에 공감하면서 왜 그것을 공부한다고 하면 특이하다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여성주의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되었던 다이어트, 낙태에 관한 심층적인 사회구조를 알게 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순결 이데올로기를 조금씩 포착할 수 있었다. 이 과정들은 사실 무척 많은 고민과 토론을 수반했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데 여성주의를 공부한다는 것이 알묘연하게 정리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이것도 성목욕이니?" "이 상황에 대해 여성주의는 뭐라 말하니?"라는 질문을 던진다. A=B다 라는 식의 답을 원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인한 말이지만 솔직히 나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여성주의는 성차별에 관한 고민과 표현의 과정이며 모든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주의는 개인 외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고민을 풀어내는 언어이기 때문에 특정한 책이나 인물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반 내에서나 집안에서도 나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여성주의적인 목소리를 단순히 외부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슬퍼진다. 반 내에서도 여성주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비난과 질문들을 보자기가 떠안아 버리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되는데 이런 담론들은 사실 모두가 고민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에 있는 질문들도 하나의 고민의 시작일 수 있기에 나는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번갈기도 하다)

작년 보자기 예비학교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나 또한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총 여학생회나 여류는 왜 있는지?' '여성주의자는 프리섹스주의자인지' 등등을 이야기 하면서 편하고 즐거웠다. 반 내 소모임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반 내에서도 거리낌 없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교차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세미나나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함께 운동을 하고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즐겁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너무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기대된다.

by_ 율무

문과대 철학8반 보자기 모임에서 느꼈던 것들



법대이야기

Intro

2007년, '새내기'라는 이름으로 보낸 1년은 제게 있어서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참 많은 감정들이 교차한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대학에 들어와 '대학문화'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동시에 느낀 두려움을 느낀 작년을 떠올리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지난 1년을 정말 잘 보냈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젠 '새내기'라는 이름이 아닌 (아직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색하지만) '선배'라는 이름으로 준비하는 2008년이 작년과는 또 다른 느낌의 두려움과 그보다 더 큰 기대로 가슴이 설칩니다.

다시 떠오르는 기억, 여성주의

지난 1년간의 반 생활에서 참 많은 것을 얻고 행복했기 때문에, 2008년을 반과 함께, 반을 위해 보내보겠다!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작년의 내가 느꼈던 느낌, 행복했던 그 기억들을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새내기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결심을 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보다는 그저 '열정 하나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 해를 지내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되자, 무엇이 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내기였을 때 무엇이 두려웠던가. '대학에 가면 선배들이 술을 준다. 못 마셔도 먹어야 한다.', '대학교는 자유롭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문란하다.'라는 소리를 입학 전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작 들어가 보기도 전에 지레 겁부터 먹고 OT때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입학하고 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1년 동안 그 우려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은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때 뇌리에 스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OT와 새터 때에 참 많이 들어본 그 단어, 여성주의.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기로, 법대는 다른 단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주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있는 법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과대에 비해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있는 문제들(가령,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자치규약의 내용들에서도 '나이권력', '학번권력'에 관한 사항들은 이러한 권력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가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여성주의

사실, 작년부터 여성주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2008년을 준비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자료들을 보았지만, 그 '여성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것은 저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되어서 반 학우들 간의 의견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반 학우들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주의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우들이 여성주의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기도 하였고, 그 부분은 주로 남학우들의 경우였습니다. 여성주의를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여성주의' 이름에 대한 (왜 '성평등'주의가 아닌 '여성'주의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거부감을 갖고 있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처음 '여성주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성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과연 '남자'인 내가 온전하게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여성주의는 결코 '여성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남성들에게는 불이익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들만이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자'라서 지금 온전하게 그것을 공감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의 경우, 일방적인 강의형식의 방법이 지루할 뿐더러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였고, 지금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도, 정작 보

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면 그건 정말 '하나마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잘 준비된 상이라도 먹는 사람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접하게 될 때, 아무리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라도 나도 모르게 조금은 어색함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새로 산 멋진 구두가 뻑뻑해서 걸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계속 신으면서, 내가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구두가 부드러워지고, 편하게 신고 다니게 됩니다. 여성주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접근조차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접하게 되고, 일상 속에서 그에 대해 하나하나 느끼면서 점점 여성주의는 편하게, 행복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느꼈던 그 느낌을, 행복했던 그 기분을 모든 학우 분들이 막연한 거부감, 어려움 때문에 우리 모두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행복해지는 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몸소 느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Outro

여성주의에 대해 아직 배울 점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이 사실 조금 내 능력 밖의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시 쓴 글을 읽어보면서, '차라리 쓰겠다고 하지 말 걸'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솔직했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있고 '아!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by. 박연철

나의 새내기 시절, 사과대이야기

처음 대학에 입학해서 겪었던 2,3월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보면 나에겐 '최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물론 그 때는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 지, 내가 왜 기분이 나쁜 것인지를 설명해낼 나의 언어가 없었기에 "내가 이상한가?" 하고 그저 혼자서 궁공 앓을 뿐이었다. 선배들에게 예쁨도 받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었던 나는 시키는 건 무조건 열심히 했다. 게임도, 자기소개도, 심지어 FM까지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통일연세~어이! 피부지성 사과대~를 외치며 목소리 크다고 칭찬받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벌개진다. 굳이 그런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목소리가 크고 몸을 잘 움직이는 나와는 달리, 지난 20여년의 세월 동안 사회의 시선에 갇혀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학우나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학우들을 알게 모르게 소외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못했다.

하지만 FM을 잘했던 나에게는 한계가 있었으니, 바로 강요된 술이었다. 대학에 가면 술을 강제로 마셔서 취하게 만든대 라는 대학괴담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고, 첫 OT 날 밤에 처음으로 선배들과 물려간 신촌의 술집에서 강제로 입에 맥주잔을 들이부었던 한 선배와 그에 너무도 충격받아 신촌 거리로 뛰쳐나와서 하염없이 울어댔던 내가 떠오른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반에서 빠져나왔냐고? 그 때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학생활이란 사회과학대의 '반' 공동체 밖에 없었

고,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아등바등 적응해보려고 애썼다. 뒤돌아 술자리는 가지 않았지만, 남은 이들의 OT도 참가했으며 심지어 새터에도 따라갔다. 새터에서 보았던 사과대 반 회장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공연은 바로 '여장'이었다. 과도한 여성성(지나치게 큰 가슴과 새빨간 입술 등)을 재현해 내며 새내기들의 웃음을 유발해냈던 5명의 회장들은 기억에 남는 반면, 1명이었던 다른 반 여자 회장은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 별로 큰 효과와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 때엔 '여장'이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왜곡을 통해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해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겪는 웬지 모를 불편함을 설명해 낼 언어들이 없었기에 그저 별로 마땅찮은 말로 같이 웃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뒤이어 강요된 술자리가 다가왔고, 내가 살기 위해 개발한 특단의 대책은 입고 있던 상의재킷을 벗어서 왼쪽 옆에 벗어놓은 후에, 게임을 통해 3-4분 간격으로 돌아오는 반강제의 소주 한 잔을 그 옷에 슬쩍 흡수시키는 것이었다. 옷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아남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처절하게 온갖 수를 써보았지만, 결국 학기가 시작된 후, 나는 점점 반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반 활동'이란 결국 수업이 끝난 후, '반 선배들과의 술자리에 밤새서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었다. 개강총회, 종강총회 등을 한 번도 빠짐없

이 가고 반 내에 있는 농구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억울하게도 난 반 활동 안하는 애가 되었다. 그 농구 동아리 활동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다. 어려서부터 농구로망을 키워왔던 나는 '농구 가르쳐 줄게'라는 한 마디에 넘어가서 농구동아리에 가입했지만, '여학생'인 나는 자연스럽게 매니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농구코트에서의 훈련에서는 나는 자연스레 배제되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넌 여자니까 안돼"라고 대놓고 배제시킨 것은 아니었다. 155cm인 내 키와 농구를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나의 실력은 그들과 농구를 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었고, 잠깐의 쉬는 시간에 공을 띄워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그저 '매니저'로써 바위에 앉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총학생회 주관의 체육대회에서 결석제가 나오는 대상은 오직 남학우들 뿐이었다. 그들의 사고 체계에는 '농구하는 사람=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체육대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던 것.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한 억울함을 가지고 수업으로 향했던 무거운 발걸음이 아직도 기억에 난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언니들(생물학적 의미의 여자선배들이란 의미도 되지만, 나와 같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생물학적 성별은 딱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 당시의 반 공동체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내가 입학했던 06년도 당시, 아예 반에 남아있는 여자 선배들의 수는 채 다섯 손가락정도였고, 그나마 그 중에 내가 소통하고 싶은 나의 롤 모델은 없었다. 나와 같은 감수성을 가지고 그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굳건한 공동체에 질려 다들 뿔뿔이 자기가 살 공간을 찾아 흩어져 있다는 것을 그 때는 몰랐기에 "여자들은 다들 자기 학점 관리만 하느라 반 활동을 안 해"라는 저들의 음모에 속아 넘어갔었다. 지금의 나라면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반 활동이라는 건 뭐

죠? 밤새서 술 마시는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들을 제공한 적이 있나요?"라고 따져보고 싶지만 그 때는 그저 반을 떠난 여자 선배들이 원망스러운 뿐이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꼭 살아남아서 여자선배로서 새내기들과 소통하겠어!"라고 마음먹었지만, 그 마초적인 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나를 잡아먹는 일이었고, 결국 나는 이제껏 반과 사과대를 떠나와서 여성주의 자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해 왔다.

반 활동 혹은 내가 속한 단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같은 관심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정보의 공유들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같은 생활공간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소통도 더 자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러한 기회들을 박탈당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 활동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이어야 하고 권리어야 한다. 누구나 반방도 사용하고, 자신보다 먼저 비슷한 대학생활을 겪은 반의 선배들을 통해 여러 지적인 자극과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반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난 이 년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반의 문화와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다시 사과대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는 요즈음, 새내기 시절에 내가 겪었던 감정들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이 글은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이 글을 읽고 '나만 이런 불편함을 가진 것이 아니구나'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가 되길, 그리고 어떤 마초들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by 사과대의 어느 학생

덧 이 글은 내가 속한 사과대의 특정한 한 반에서 겪은 나의 이야기이므로, 사과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겪었던 경험이 절대 '너무나도 특수한 경험'이 아님을 일기에 감히 '사과대 이야기'라고 명명하여 글을 쓴 것임을 밝힙니다.

상대이야기

여자 새내기

이제는 좀 멀게 느껴지는 새내기 때, 사발식이라든가 줄 세워놓고 때린다든가 어찌고저찌고 하는 무서운(?) 것들이 없는 곳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무섭고 화나는 것들은 그렇게 표면적인 것들뿐이 아니었다. 처음 새내기 OT를 와서 포스트 게임을 할 때였다. 여러 가지 게임 중에 하나가 사람은 10명인데 땅에 발붙이고 있는 다리는 5개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게임을 했다. 처음에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하는 게임인가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었고, 노골적으로 '야, 남자애들 뭐하냐? 여자애들 업어야지' 라고 말하는 선배들도 있었다. 너무 짜증나서 내가 그냥 같은 조 여자애를 업었다. 결과는? 당연히 '나가리' 였다. 그리고 결국 나한테 업었던 그 친구도, 나도 다른 남자애한테 업혀야 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여자 새내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아니 어찌면 너무도 눈에 보이는 폭력이 거북함으로 느껴진 것이 나쁜만이 아니었다는 걸 참 아이러니하게도 1년 뒤 선배가 되어 후배를 받을 때서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할 공간이 없었다. 그것은 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연애

그렇게 시작된 대학생들은 정말 단순했다. 너무 단순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다. 술과 응원, FM 그리고 연애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새내기 여학생들은 연애대상이 되거나, 아예 연애대상에서 제외되어 남성으로써 볼릴 뿐이었다. 둘 다 아니라면? 그냥 공동체에 안 나가거나 못 나가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대상 일 뿐이지, '주체'가 되지는 못했다. 무조건 일반화시켜 말하는 것 같지만, 주체가 되는 여학생들은 당돌하다 혹은 까졌다로 표현되기

일쑤였다. 뭐 좋게 표현하면 '부담스럽다' 이기도 했다.

스킨십

다른 데서는 몰라도, 성차별이나 성폭력 등등 말할 수 없이 구리고 짜증나는 것들이 그나마 적은 공간이 대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드러나는 공간일 뿐이었다.

여자애들은 이기적이라서 반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늘어놓는 얘기라고는 응답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발언들이었고 친하다는 이유로 내미는 손은 그저 그냥 스킨십일 뿐이었다. 스킨십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라,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아무런 동의 없이 당연한 듯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다.

글을 쓰다보니, 나의 생활공간을 너무 짜증나고 구리다고만 표현한 것 같아 조금 그렇다. 하지만 무조건 구린 것들만 있지는 않기에 지금까지도 내 생활공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우리 반도 좋고, 우리 학과도 좋고, 우리 건물도 좋고, 우리 사람들도 좋다. 하지만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좋아하기에 더더욱 많은 문제제기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같이 행복하고 더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남은 많은 여학생들과 가끔씩 만나는 정말 편하고 좋은 남학생들이 가능성으로 보이고 희망으로 보인다. 너무 사랑스럽다. 나도 사랑스러운 인간이고 싶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싶다. 우리 상대에서도 더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만들어보자. 모두가 행복한 우리들의 공간!

by_ 병

이과대이야기

새터를 경험한 선배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새내기로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에 갔거나 선배가 되어 '새터'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설명도 들지 못한 자치규약 포스터가 방마다 붙어있던 것을.

그럼 이 말은 기억하시나요?

"총여에 신고한다~ 그런 건 내규에 걸려 ㅋㅋ" 자치규약 항목에 예시로 붙은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회화화하던 선배들의 말을.

이과대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이나 여/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말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미 평등하다고. 그리고 자치규약에 걸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트집잡힐 일-보통 총여에 가서 사과자보를 쓸 일-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오히려 여성주의를 꺼내들고 와서 문제를 만들 뿐이라고.

선/후배를 가르치고, 여/남성을 가르치고, 상/하사를 가르치는 현 사회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호명하고 관계 맺음을 하는데 스스로가 살아온 경험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사이가 온전히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차이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단지 '평등'이라는 단어로 정당화한다면 누구든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평등'인데 원하는 만큼

자신은 옳다고 여기고, 더하여 그 공동체가 평등하다고 바라고 또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신입생 OT(오리엔테이션)'와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준비하며 '성평등 자치규약'에 대해 다시금 돌아봅니다. 대학생들이 한, 두해를 거들해도 자치규약 이야기는 언제나 신입생 맞이 준비하는 1, 2월에만 반짝합니다. 안타깝게도 반짝 마저 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전히 동의할 순 없다.'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서로의 약속인 '성평등 자치규약'이 왜 우리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을까요? 이과대에선 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충분히 오가고 있지 못합니다. 새내기 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도 촌극의 수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고, 누군가는 웃고 떠드는 가운데 누구는 상처받고 심지어 공연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촌극을 하고 있는 새내기들은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 때문에 공연이 중단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야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치규약이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행동이 혹시 누군가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첫걸음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이 실현됩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여학생, 남학생 구분짓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맺음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내 친구를 위한 한 걸음의 배려입니다.

by_ 이과대의 어느 학생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여연자연은 2005년 겨울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학내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학내 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등의 모임으로 이어져왔고,

여연자연 역시 이를 이어받아

여성의 시각으로 학내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여연자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학내에서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소모임을 알고 싶은 분들,

여연자연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여연자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커뮤니티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http://yeoyeon.cyworld.com>

성폭력 피해 대처법

과, 반,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중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이고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내가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불쾌감과 불편함, 그리고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쾌한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마음이 찝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사건에 대한 지원,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학내 성폭력상담실이나 총여학생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총여학생회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action-tem@yonsei.ac.kr / 02) 2123-3645

■ 교내 성폭력상담실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helper@yonsei.ac.kr / 02) 2123-2118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쪽지를 보내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신고하고 싶다면 〈사이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http://www.bj.or.kr>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발생시간과 해당 URL 및 가해자 ID, 캡처 화면이나 갈무리한 채팅 내용 등을 가지고서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 게시판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폭력(강간, 강간치상)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당황함과 불쾌함에 사위를 하거나 증거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길 바라더라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및 증언 확보

- 사건 직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곧바로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발견되는 피나 정액을 증거로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단서도 꼭 끊어두세요.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가해가 있었던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고, 가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종이 가방이나 지퍼백에 넣어둡니다.

2.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원하신다면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락하세요.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2 / ksvro@sisters.or.kr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
02) 739-8858 / minwoo@womenlink.or.kr
<http://www.womenlink.or.kr>

2008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yeoyeon.cyworld.com

2008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50공통) 이어 김민정교수님

꼭 교수님들

(50공통) 윤Y 김민정교수님

(50공통) 윤Y 김민정교수님

(50공통) 윤Y 김민정교수님

(50공통) 윤Y 김민정교수님

앞을 다서는 20대 여성들의 20대 여성들의 20대 여성들의

를Y 금Y 를Y새Y

관상 를Y새Y 극Y능Y 를Y능Y



CONTENTS

- 03 • 우주를 전복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띠고
- 05 • 공동체 이야기
 - 들어가는 글 _ 5
 - episode 1 _ 6
 - episode 2 _ 8
 - episode 3 _ 10
 - episode 4 _ 12
 - 안녕, 공동체 _ 13
 - 불꽃 5반 이야기 _ 16
 - 놀이는, 빠리빠리호리빠리롱 _ 18
- 20 •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 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 _ 20
 - 여학생 생활 백서 _ 28
 - 남학생에게 보내는 편지 _ 30
 - 귀여워, 귀여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_ 34
- 38 • 홍보
 - 20대 총여학생회 〈몸을 누비다〉 _ 38
 - 주말/일일세미나 _ 39
 - 탈이성애중심주의운동팀 _ 40
 - 페미니리 _ 41
- 42 • 소모임 소개
 - 공대 여학생 소모임 '물음표' _ 42
 - 문대 철학8반 여성주의 소모임 '보자기' _ 43
 - 문대 여성주의 네트워크 '앨리스' _ 44
 - 사회과학대 여성주의 소모임 _ 45
 - 신대 여학생회 _ 46
 - 신대 여성 신학 동아리 '물구나무' _ 47
 - 여성주의 힙합 공동체 'I WILL' _ 48
 - 숙자씨 _ 49
- 50 • 여성주의 용어 설명



은행나무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빙글빙글했거나
상처를 비집어내는 선정적인 문구에 힘이 빠지거나
공감하지 않으려 하는 단단함에 부딪쳐 상처입거나
당연하게 소외하는 일상에 지치거나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밀려오거나
무신경하고 폭력적인 말에 눈물이 나거나
서둘러 굴었다는 자책에 우울해지더라도

하얀 입김 사이로 보이는 반가운 등을 만나거나
마주치는 이야기에 가슴이 떨리거나
새록새록 솟아나는 가능성에 힘받거나
사랑할만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끼룩거리거나
잔디에 무리지어 푸드덕대는 까치에게 인사하거나
수북하게 쌓여있는 은행잎 사이에서 좋아하는 색깔을 발견하거나
자기 전, 오늘의 나를 떠올리며 미소지을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학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네는 농담은 누군가의 성을 대상화하기 일쑤였고, 친해지자고 꺼낸 대화는 어느새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성연애를 권장하는 것이 대학 문화의 단편이 되어 서로에게 더 남성적이 되거나 더 여성적이 되기를 강요하는 가운데,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고,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속속들이 스며있는 학내에서, 이러한 대학 문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이미 즐겁지 않은 그들의 생활공동체의 주변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공동체 내부에서 '우리 문제가 아닌 것', '무시해도 되는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변화해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음에도 대안이 없다거나 원래 그래왔으니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체념, 혹은 변명으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소외하고 왜 그것이 문제적인지조차 잘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태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주의여성주의는 가부장제 사회에 반대하는 가치관입니다. 쉽게 풀어놓아, 모든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성주의는 사회 안의 나를 재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어떠한 상황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그 사회의 일부인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서 있는 지점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관계를 고민하여 다시 사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의 관점으로 서로의 관계맺음을 성찰하며, 공동체라는 것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동체에서 통용되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성애중심주의가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았는지, 성별 권력관계가 누구의 평등한 관계를 저해하고, 남성중심의 사고와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남성적이기 힘들거나 남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해왔는지를,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직접 겪고 있는 일임을 느끼고 고민하고 변화를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전사회적으로 당연히 자리잡은 남성 중심성과 여성의 경험에 대한 배제에 의문을 던지고 이러한 권력 행사에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성별 이분법과 지의적인 기준에 의한 정상성을 인정하며 수많은 비정상성을 양산하고 주변으로 몰아내는 이성애중심주의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비난해야 합니다. 지적해내기도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다른 억압들과 중첩되어 우리의 생활을 옥아매고 있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 주체적으로 변화를 외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기득권에 의해 존속되어 온 많은 개념을 흔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우주라도 전복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속에 자그마한
여성주의 뒤집개 하나
아무지게 쥐고 시작합니다.



우주를 전복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띠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마땅하지요. 우리가 함께 즐겁기 위하여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시작을 고민하고 구성하고 여성주의적인 O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성주의'라는 생소한, 혹은 거부감을 주는 언어가 나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타인을 배려하는 고민을 되새기며, 내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흥얼흥얼 배어나오는 여성주의를 만나고 섹터워킹하면 합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굉장한 일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고민을 만드는 작은 코드킴이기 마련이지요. 내 주변의 면면을 바꾸어내는 작은 시도들으로써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으로 서로에게 강요나 권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는 평등한 관계맺음을 나의 주변인과 함께 하는 시간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평등하기'는 길으로는 쉬운 말이지만, 처음 만난 이를 나이를 잣대로 파악하는 우리, 은근히 학벌이나 학번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관계 하나하나를 성찰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지점에서 살아가는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그리고 나도 그러한 관계맺음을 통해 존중받기 위하여, '평등하기'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가부장제의 은근하고 세밀한 간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아채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의도하지 않은 권력이 우리의 관계에 끼어들도록 방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평등한 주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지겠지요. 그래서 여성주의의 고민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공동체에서 권력관계가 발생하는 연결고리 하나하나를 살피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이 자책하지 않도록, 공동체에 정을 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점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 공동체 자체에 있음을 인식하여,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기를 바랍니다.

주류만이 살아남는 공동체에서 누구나 각자의 살아남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로의 변화를 꿈꾸며, 우리 안의 주변적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계성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놓지 않은 채,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만남을, 공동체를 시작해갔으면 합니다.

**이는 과연 우주가 뒤집히는 일이라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by_ 우주 전복, 만만치 않아... 우주전복곡예단 자당

공동체이야기

그/녀의 '반', 가깝지만 먼 이야기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만나는 공동체 '반', 환상과 공포가 섞인 채로 마주한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려 애를 쓴다.
무엇에 적응해야 하는 지도 모른 채,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만이 머리를 채운다.
어떤이들에게는 편안하고 즐거운 '반'이 되지만, 또 어떤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반에서 겪었던 불편함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녀들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으로 적응에 지쳐 반에서 떨어져 나간다.

어떤이들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왔던 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이야기들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불편함들이 마음껏 이야기 될 때에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하여, 새내기로서 반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에피소드 내 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물론 이 내 가지로써만 모든 경험들이 이야기 될 순 없겠지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Excerpt (1998-2009년 동아대학교 재학 시의 일기, SNS, 이메일, 만화 등) (10에서 발행한 글입니다.)



트 별한 것이 없는 여자아이는 공동체의 변두리가 가장 어울리는 자리다.

난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난 예쁜 얼굴도 없고, 잘난 말주변이나 유머도 갖고 있지 않고, 리더십이나 원만한 성격 같은 건 더더욱 없고 원만치 못한 성격 때문에 맘 맞는 친구 하나 가져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난 중심에 자리 잡고 싶었다. 어디든 애기가 되어지는 그런 여자아이가 되고 싶다. 나의 조건과 나의 욕망은 이만큼이나 거리가 멀다.

그래도 난, 내가 갖지 못한 그 특별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TV에 보이는 그녀들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는 그녀에게만 기대되는 그만큼을 채우면 되는 거다.

대학 와서 처음 발을 디밀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 공간에서 나는 그녀를 연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그들이 요구하는 여성성을 상실한, 그녀다. 술은 잘도 받아먹어서 남자아이에게 흑장미 요청을 받기도 하고, MT에선 절대 잠들지 않는다. FM 요구에선 절대 뒤를 빼지 않고 호탕하게 하고, 깃발을 휘두르는 것을 자청한다. 게임에서 지면 벌칙도 곧잘 받아들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른다. 그녀가 핑클 노래를 부르면 그대로 입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영악한 나는 핑크색 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어색한 소녀티를 내며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나는 반에서 가장 '예쁜' 친구와 그룹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았다. 반에서 가장 '예쁜' 친구와 그룹을 만드는 것은 연애상담을 하러올 많은 남자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다는 나의 이기

심 때문이다.

난 특별한 것이 없는 여자아이지만 어떻게 하면 남자아이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지 너무나도 잘 아는 영악한 여자아이다.

보스 게임을 했다. 양편으로 서로를 갈라서 보스를 세운 다음, 피쳐에 가득 든 술을 부하부터 한 모금씩 마셔나간 다음 보스가 마지막으로 마시는 게임이다. 보스는 나와, 그리고 나의 가장 '예쁜' 친구다. 나는 피쳐 절반가량의 술을 마셔야 했고,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저기, 나도 술을 이 정도까지 마시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나 나는 그녀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반에서 끈 떨어진 연이 곧 되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 갖는 대학수업의 자율성의 절반을 방종으로 메우게 됐고 그 시간들은 모두 여기저기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나는 언제든지 부르면 어디에나 나갈 수 있는 쿨한 여자아이니까. 특별히 나의 귀가 시간이라든지 나의 밤길에 대한 안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예쁜' 친구의 밤길에 대한 남자아이들의 걱정과 나의 밤길에 대한 남자아이들의 무관심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갈 때쯤 나도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다—내가 화가 난 것은 보호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시선은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나누고 있는 거지?

수미분한 여자아이는 아무리 해도 연애에 성공할 수 없지만, 예쁜 여자아이는 매일매일 걸려오는 연애를 차내느라 혼란이 난다. 나는 죽어라 노력해야만 반의 끈을 놓지 않

을 수 있는데, '예쁜' 친구는 간간히 반에 나와도 여전히 반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

'예쁜' 친구에 대한 마음을 나에게 털어놓아 대는 남자아이들의 술 취한 전화가 술을 짜증나기 시작할 무렵, 나는 몹시 아파버렸다.

한참을 아프고 반으로 돌아간 나는 문득 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아픈 동안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온 날 그다지 반기지도 않았다. 여전히 반은 나 없이도 잘 굴러갔고, 난 그토록 싫어했던 변두리의 자리에 존재했던 거다.

너무나도 낯설어져버린 그 공간에서, 나는 아연하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어디에 있는 거지?"

남자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지 나라는 겉모습으로 포장된 익살꾼이었다. 뚱뚱한 여자 개그맨이 남자아이의 일상에 조그마한 영향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는 어느새 다른 여자아이를 '업사리' 교체되어 있었다. 여성 익살꾼은 굳이 나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예쁘장해진 여자선배의 옛날 못생긴 모습을 닮았다는 이유, 그 단 하나로 반의 익살꾼으로 발탁된 그녀는 아마 내가 그랬듯 쉽게 소비되고 쉽게 버려질 거다.



깊은 이해 한 조각 없이, 그저 필요에 의해 친해졌던 '예쁜' 친구에게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가 생겼고 어느새 '예쁜' 친구의 연애 매니지먼트는 내가 아닌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가 담당하고 있었다. 나는 매니지먼트로서의 어떤 의미조차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단순히 사물화된 매개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예쁜' 친구는 과연 그 위치에서 여전히 행복할까. 내가 소비되고 버려진 방식처럼, 그녀 또한 그렇게 되진 않을까. 여전히 '친구'는 만나지 못하고 '연애 매니지먼트'만을 곁에 두고 있는 '예쁜' 친구가 정말로 행복한 걸까. 그 친구에게 받은 어떠한 공간이었을까.

반은 '나'라는 여학우를 포용할 공간을 안고 있지 않았다.

'나'라는 여학우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질 만한 공간은 이제 다시 찾아야 한다.

한참 후, 나는 나에게, 대학이란 공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그 때처럼,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야만 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지?

by. 이비

이른 봄, 약간은 녹록했던 지하의 동아리 방. 오디션을 보러 온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푸른 빛이 돌만큼 하얗게 보이던 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한 오디션과, 기다리기를 포기했을 때쯤 받았던 합격을 알리는 음성 메시지. 대학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공동체는 지금도 빛바랜 조각이불같이 꿰어낸 장면들로 기억된다. 그 곳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조차 꿰어내야 할 천 조각들처럼 흩어져 있었다.

즐거운 일들이 많았다. 정기 모임에서도, 행사에서도, 선배들과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나는 무척이나 친절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수업을 듣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 사람들. 물론 별로 대답하기 즐거운 것들은 아니지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런 것들뿐이라는 생각에 그냥 웃으며 대답했던 것 같다. 나도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했겠지? 솔직히 잘 기억나진 않는다. 3월 내내,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선배들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면서 나는 그냥 많은 질문에 대답하고, 많이 웃으면서 지냈다.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고민해보지는 않았다. 내가 FM을 잘 못해도, 술을 잘 못 마셔도, 같이 불려야 하는 노래를 조금씩 틀려도 선배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었으니까. 술자리 중간에 나와도 항상 남자 선배나 동기가 나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좀 늦은 시간에 집 앞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안부문자가,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 가지고 나왔는지 묻는 문자가 오곤 했다. 내가 좋아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항상 같이 가 줄 사람이 있었다. 처음엔 무척 신기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다. 대학에서 새내기엔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시간과 돈을 써 가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니. 우습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 곳에 흐르는 공기, 정확히 말하면 나를 둘러싸고 흐르는 공기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은 늦은 봄, 동아리에서 동기들끼리 MT를 갔을 때였다. 한 남자 선배를 짝사랑하는 여자 동기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누군가의 입에서 나를 향해 튀어나온 말. '넌 인기 많아서 좋겠다.'

뭐라고 말을 해야하지? 나는 원래 농담을 잘 받아넘기는 재주가 없긴 하지만, 그 말을 웃으며 받아넘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인기? 인기가 많다는 건 뭐지?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 건 아니다. 어쩌면, 나는 그냥 외면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른다. 혹시 나를 연애 대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처럼 나도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그렇게 오고 가는 감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으려 했다면, 나는 스스로를 '인기 많은 사람'이라고 생

각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의 나를 쉽게 상상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사실, 나는 그저 재미있게 지내고 싶었다.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어딘가에 묶인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노래를 틀렸을 때 유난히 자주 지적을 해주면서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여자선배의 시선이나, 내가 어떤 남자 선배와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나를 불러내어 음료수를 사러 가자고 하는 여자동기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건 그냥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때 내가 외면한 건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나를 데려다주는 남자 선배들, 수업 시간에 꼭 옆에 앉는 남자 동기, 모두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수업에 대한 이야기, TV 이야기, 동아리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글썽. 나는 어느새 그런 웃음이 한없이 지루해져버렸다. 동아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도,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무언가 계속 지루하기만 했다. MT에서 나에게 '인기가 많다'는 말을 던졌던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에 말을 건낼 수가 없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회의 시간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 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그런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그렇게 조각 나 있는 내 모습을 깨달은 뒤에도,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다.

나와 무척 가깝게 지내던 한 남자선배가 동아리 안에서 한 여자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남자선배는 그 이후로 나에게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문득 생각나서 보낸 안부문자의 답문은 무척이나 건조했다. '오랜만이네 언제 한 번 밥이나 먹자'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맞은 봄이 끝나고 방학이 다가올 무렵까지, 몇 명의 남자 선배들이, 그리고 한 명의 남자 동기가 그렇게 건조한 단어의 나열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가 노래를 틀려도, 술을 잘 못 마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친절했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갈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나는 깨달았다. 내 동기가 말했던 나의 인기란, 언제 한 번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초라한 쿠폰 묶음일 뿐이라는 걸.

나는 문득문득 나의 기억의 단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펼쳐놓을 수록, 그 안의 내 모습은 점점 더 낯설어졌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아끼던 악보들을 들고 마지막으로 동아리방의 문을 닫고 나오던 날, 나는 천천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동아리에서 부르던 노래들이 그리울 순간이 오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각난 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나의 노래를 써 보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노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by_ 먼지



입학한 지 벌써 3년이나 흘렀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졸업을 바라보는 학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 없이 살아온 날들이건만, 그래도 나이를 헛되이 먹지는 않았는지, 분명 내가 변화되었음을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더라도) 느낀다. 그래서 내가 입학할 때의 기억들을 되돌려 보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들여다본 2002년 3월 한 달은, 반/동아리 안에 소속되고 싶어서 매우 바빴던 시간이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과연 그 공동체는, 그 시간 속의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2005년 3월도 마찬가지로 매우 바쁘고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새내기든 선배든 가릴 것 없이.

하루를 멀다하고 일정이 생기고, 신촌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낯설고 보일 테고, 응원소리도 들릴 테고, 술에 취한 사람도 볼 수 있겠다.

그러한 3월에 대한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행사 후에 가게 되는 뒷풀이 자리이다. 나는 그 자리가 재미없었다. 술을 잘 마시지도 못했고, 술이 좋지 않았다. 뭐, 사실 술이 그렇게 싫었던 것은 아니다. 술과 안주, 사람들과 오고가는 말들, 술집의 조명과 음악. 그 속에서 나는 조용하고 암전하게 술을 마셨으니까. 정말, 조용하고 암전

했었다. 가끔 옆에 있는 친구와 어색한 인사를 하고,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때를 제외하곤 푹푹 잠을 잘도 마셨다.

"무슨 동네 살아?" "아, 사투리 쓰는 구나. 지방에서 올라왔으면 특목고 다녔겠네" "아 니라구?" "아.. 그렇구나"

정말 별 의미 없는 대화였다. 하지만 그 속에 뼈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는다. 무슨 동네 사는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내가 시끌벅적하고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그렇게 조용하고 암전하게 앉아있었던 것은 혹은 앉아있어야 했던 것은, 내성을 떨거나 괜히 몸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다. 만났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돌아가며 한 다음, "와,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건배나 하자" "이제 술도 들어갔고, 분위기 더 띄워 볼 겸, 응원이나 할까" "심심한데 게임 한 판 어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뒷풀이 자리가 딱이나 당황스러웠고, 원샷이나 응원, 게임을 하기 싫은 내 느낌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 기조차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걸까. 특히 길거리에서 큰 소리와 현란한 몸동작으로 응원하는 것은 공동체나 개인들의 '과격'함을 과시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들어왔으니 자유를 만끽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순간적인 일



발을 느낄 수 있는 응원을 택했을 뿐이었다. 더구나 '여고생'으로서의 조심함을 강요받으면서 자랐던 나에게 그런 일련의 것들은 모두 '강요'로서 다가왔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색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손쉽고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웃고 떠들고 난 후에 밀려오는 허무함은 견디기가 힘들었다. 나는 좀 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원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들로 꽂차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암전하고 조용히 앉아있었다는 사실이다. 별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도, 해야 한다는 의무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가 몇 번 있은 후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뒷풀이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물론, 나에게 친한 척을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어깨를 톡톡 건드는 남자애들도 싫었고, 과격한 응원도 싫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런 뒷풀이 자리만이 나의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수줍고 말없는, 분위기를 잘 타지 못하는, 이리저리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만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나와 어울리지 않는 반은, 나를 포용해줄 만큼 너그럽지 않았다.

물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나와 비슷한 성격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은 존재했다. 하지만 남자선배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은 '사나이들만의 세계'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았고 실제로 그랬다. 반면, 내가 그곳에 살아남으려면, 썩썩하고 말 잘하는 털털한 여자아이였거나 수려한 외모와 자태로 인해 어딜 가도 인기 있는 여자아이였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싫어했고, 그럴 수도 없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줄 여자선배들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또한 나 외에도, 그 시절 소심하게 '보였던' 여학생들은 그렇게 점점 사라져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나는, 그냥 조용하고 잘 웃는 소심한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거기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공동체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탓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 새내기 시절의 봄은 지나갔다.

by_고래

새 내기 시절, 반 친구들끼리 엠티를 갔다. 몇 명에서 모여 진실게임을 했다. 비교적 진전한 삶을 살아온 나에게 별로 밝혀낼 것이 없자, 궁여지책으로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아이 이름을 대라고 하였다. 질문도 어이없었지만, 대답하지 못하고 원샷한 내가 더 어이없어 보였을 것이다.

밤에 캠프파이어를 했다. 웅원하고 소리 지르고 불이 사그라질 때쯤 남자친구들만 남아서 소변으로 불을 켜다. 거기에 끼지 못했다. 나에게 왜 끼지 못했는지 고민하는 일은 두려웠던 것 같다. 그저 나처럼 거기에 끼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그러저럭 얼굴을 들어밀고 조금 친해진다 싶은 친구들이 생기니, 그 사이에서 "반 애들 중에 누가 제일 괜찮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건 나름대로 비밀을 공유하면서 가까워지는 방식이었다. 난 아무렇지 않게 이성 친구 이름을 하나 대곤 했다. '좋아하는 것과 이쁜 것은 다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연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대체로 열심히 듣다가 가끔씩 몇 마디씩 하면 그러저럭 넘어가곤 했다. 친해진 것 같으면서도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가는 길에 외로움 맛이 나는 무엇이 느껴졌다.

그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많이 웃고 떠들었다. 그러다 가끔씩 남자애들끼리 스킨십을 과도하게 한다 싶으면 "서로 잘 어울리는데, 둘이 사귀어라."라고 놀리며 웃곤 했다. 하지만 신나게 웃고 난 뒤 입이 다물어질 때쯤에는, 언제나 살짝 씁쓸함이 입에 배여 있곤 했다.

1학기가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반에 가지 않았다. 그냥 그곳이 나에게 편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곳에서 그들이 아닌 내가 나와야 하

는지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에 익숙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동성애자로서 내가 편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반을 나와 혼자 노는 것도 지겨워질 무렵 동아리에 들어갔다. 동아리에는 나와 조금 더 문화적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많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에 즐거웠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아무리 친해져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있었고, 나에게 그건 모든 인간에 대한 벽이었다. 아니 모든 인간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었다.

나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나에게 공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나 사이의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동성애자로서 내가 편한 공간은 있었다. 그제서야 이제껏 있던 곳이 나에게 불편했다는 걸 알았다. "불편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금 생각해보는 건,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반이라는 공간에서 왜 '나'가 나가게 된 것인가이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들이 아닌 내가 떨어져 나왔다는 게 조금 억울하다.

가끔씩 상상해본다. 내가 편안한 반. 내 경험과 욕망이 '이상한' 것이 아닌 반. 쉽게 상상되진 않는다. 단순히 남자들끼리 소변으로 불을 끄지 않는다고 해서, 날 이성애자로 간주하지 않고 "제일 괜찮은 이성친구 아니면 동성친구가 누구야?"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동성간의 스킨십을 보고 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편한 공간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마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by_모이

안녕, 공동체



여기서 어떻게든 비비적대야 하는걸까?

어느 단대의 새내기나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학내 구성원들과의 만남이란 비슷할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율동과 함께 특정 학교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신촌 한복판에서 소리높이 부르는 웅원, 밤새도록 마시고 취해서 서로 망가지며 친목을 도모하는 술자리,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해줘"식으로 고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려는 선배들의 지도까지 한가지 패턴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한 문화 사이에서 남성중심성이나 과도한 나이/학번 권력에 기반한 폭력을 발견해 불편하기도, 그저 내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끼지 못하면 대학생할 내내 아웃사이드로 지내야 할 것만 같은 은근한 불안을 지닌 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 반 문화에 편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술이나 웅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그런 문화에 부담을 느끼는 여학생들이 술을 떨어지다가지만, 반에서 목소리 좀 큰 선배의 "너네같은 애들 때문에 반이 망하는거야" 한마디면 숙연한 자세로 자책모드 들어가 이전처럼 웅원과 술로 멍치는 반 문화의 부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심지어 술을 잘 먹고, 웅원을 잘 하고, 목청 터져라

FM을 잘 하는 등 '들이대기'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문화가 이미 구성되어있고, 그에 자신을 끼워맞추기를 실패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서서히 도태되어 '반 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비난을 얻기 일쑤다.

특히 여성주의자는, 아니 적어도 여성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의 공동체에서 살아남기란 고난 그 자체다. 공동체가 작용하는 방식이나 놀이문화가 성차별적이거나 여성 배제적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예민하다는 등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는 등 함부로 넘겨짚은 막말을 듣게 되고, 그런 충돌이 싫어서 입다물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리 없어 스트레스가 밑에서부터 콕콕 찌르고 올라와서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하여 명상이라도 배워야 할 것 같다.

조금은 다른 비빌 언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기댈만한 공동체와 소속감은 필요하다. 자신이 하고자하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달려라 하니처럼 이 악물고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를 부르짖으며 혼자 달리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나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선택지가 현재의 일방적인 하나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학내의 무수히 많은 공동체들에 편입되거나 도태되거나의 두 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눈을 돌리면 그들의 리그 바깥에는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내가 겪은 여성주의 공동체도 그 중 하나다. 그것의 성격은 개인이 어떤 정치성과 정체성과 사고를 받아들이고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른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결코 기존의 공동체에서 잘 노는 이들보다 열등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을 행복하게 할 가능성을 찾아내려 노력했을 뿐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각각이 대등한 위치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대안 공동체라고 선전적이거나 우월하지도 않다. 그저 조금 다른 상상력이 발휘되었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성주의를 열쇠로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의 범주를 확장시킨 이들이다.

생활 자체가 운동의 연장이다

내가 아는 여성주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자. 여성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찾는 사람들, 어쩌다 보니 여성주의자가 된 사람들,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어 공부해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 정확히 누가 소속인지는 몰라도, 많이들 마음에 안 들어하며 어떻게든 흉을 잡아내려 관심을 기울이는 총여학생회의 실체다.

우리는 상대방의 학번과 나이를 잘 모른다. 서로 별명을 부르고 생방의 동의 하에 자유롭게 말을 놓는다. 학번의 높고 낮음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사회적인 권력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각자 자기가

불리하고 싶은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긍정하며 부른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담아 반말로 대화한다. 나이가 많은 친구에게 느끼한 시선과 함께 "선배"하고 길게 놀이며 불러보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장난질 중 하나다. 대외적으로 실명을 써야 할 때에는 보통 양성을 쓴다. 페미니스트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살 자체가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를 더욱 자신의 정치성에 부합하도록 바꾸어나가는 작업에 게으르지 않다.

우리는 자신을 억압하는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폭력이지 않기 위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함께 공부하고 고민한다. 그러다보니 일방적으로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남자 선배에게 버럭 문제제기를 할 힘을 얻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아 괴롭던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게 된 사람도 있고, 한두개 지키기도 힘든 다짐을 수백개씩 되뇌이게 된 사람도 있다. 그 중에 매일매일이 깨달음이라 여성주의 자체에 고마움을 느끼는 나같은 사람도 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가부장성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은 언제나 까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이들과 함께 입을 모아 이야기하기에, 그것은 조금 더 수월해진다. 가열찬 세미나를 마치고 땀을 만들어 먹으며 각자 자기 단대에 서식중인 성폭력 교수들 이야기를 풀어놓고, 그들까지 씹어먹을 듯이 열렬히 규탄한다. 상심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마초적인 권력에 함께 분노하고 어떻게 문제제기하면 만족스러울만큼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한다. 애들은 모여서 하구헌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서로 는 서로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준다. 거기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발견하고 키워간다. 총여학생회실 안에 가득차 있는 페너지의 기운이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하다.

피터지게 싸운다. 그래도 좋단다

그렇다고 이들의 관계가 평화적이고 목가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 아해들 어디서 격투기 좀 배우다 왔는지 전투력도 높고 욕심도 좋다. 일하다가 싸우고 싸우다가 배고프면 밥쳐먹고 밥쳐먹은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가 술쳐먹고 술쳐먹다가 싸우고 싸우다가 술쳐먹고 쉬어가며 싸우고 싸우다가 처자기도 하고 이젠 그냥 일상적으로 싸운다. 심지어 서로에게 공해있기도, 애증관계이기도, 은근 사생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도 한다. 그런데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던 편안함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모두 여성주의에 기반하여 사고하지만 너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정치에 대하여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했거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러한 원칙과 그 원칙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즐거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과 상대방이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고양시킬 것을 확신한다. 그러한 신뢰는 사랑을 넣고, 우리는 사랑하기에 끈질기게 붙어서 처싸워댄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어 하거나 가까이하길 힘든 것이라고 느끼는 여성주의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매개가 된 것이다.

이들은 일년에 세 번, 네 번씩이나 행사를 기획해 대고, 다들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참여한다. 마음 좀 급해질 즈음엔 일주일에 세 번씩 얼굴 보며 회의하고, 빨갛히면 밤새워서 같이 실무에 버텨하기도 한다. 징그럽지도 않은지 일 굵긴 시험기간에도 총여실에 오고록히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척을 한다. 이렇듯, 신기하게도 공동체는 잘 굴러간다. 하기사 당연하다. 여가야말로 우리의 비빌 언덕인 것이다.

달라지기, 그 무한한 가능성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야기만을 너무 많이 중구리장창 써내린 듯 하다. 내가 잘 알고 겪어 본 대안적인 공동체가 이곳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어 총여학생회 소개 글처럼 보이게 된 것은 부끄럽지만, 응원 문화나 엄격한 선배배관계 없이, 대안적인 관계맺기와 소통으로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이 공동체의 일상을 드러내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로 오라거나, 이렇게 공동체를 개혁해내라고 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존의 것과는 다른 방식의 문화와 소통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던지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즐거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 그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끝도 없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는 과정이건,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꾸려가는 과정이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불편함을 감내하며 쓴 웃음을 지은 채 견딜 수만은 없다. 그들이 정해놓은 경계 밖에도 비빌 언덕이 있고, 그들이 정해놓은 방식 이외에도 공동체의 존재 양식을 각자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색다른 가능성을 점치는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은, 기존의 공동체에서 갈등을 느껴던 이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다. 그들만의 독주를 흔들어 내자. 행복해지자는 욕심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

by_ 자몽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기간 동안하길 배려 자료집에서 발췌

불꽃5반 이야기

불꽃 5반의 대안문화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나는 적잖이 놀랐다.

‘대안 문화 라고?’

과연 대안적 놀이 문화가 대학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신촌거리 그 어느 곳에도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편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앉아서 조곤조곤하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해,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일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임공간이라는 건판도, 문화카페라는 타이틀도 실상은 알팍한 상술의 다른 아닐 뿐 더러 그나마 보장된 친구들의 자취, 하숙방도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비좁다. ‘대안 문화’를 굳이 공간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하여도 대학에서 하는 놀이문화는 으레 술과 게임으로 엮여져 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 게임을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어쩌면 대학문화는 아주 재미없는 놀이일 것이다. (1학년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대학 환경에서 대안문화는 ‘다들 할 수 없는 나라’ 그 자체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 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회의 할 수 없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한 것 같다. 15년이란 시간동안 불꽃 5반에서 활동해왔던 저명한 윤 모 선배의 말씀처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는 피해의식으로 똥똥똥친 여자선배들의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했던 나의 1학년 시절이 문득 떠오른다. 여자선배들에게 목청 높이며

따지곤 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참으로 많이 민망하다: 언니들.. 미안했어요.) 사람들은 갖가지 상황과 생각, 주위의 사람들과 경험들을 통해 진실로 다채롭고 다양하게 변한다.

5반 사람들이 시도했던 일들이 실제로 대안문화로 굳어졌고 새로운 놀이문화가 창출되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5반 구성원 중 하나인 나는 아주 많이 양심에 찔린다. 그리고 많이 속상하다. 불꽃 5반에는 여전히 5반의 문화에 대한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 토론과 비판이 존재한다. 단일한 ‘대안문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모호하고 또 혼란스럽게 불꽃 5반 사람들 사이를 잇고 있다. 그러나 5반 구성원들이 했던 ‘노력’은 알파벳이 인 것 같다. 비판과 토론, 반목과 갈등조차도 어쩌면 서로 타협을 찾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아래에 쓰여진 불꽃 5반 사람들의 시도는 ‘대안문화’라는 정제된 언어의 틀이 아닌, ‘노력’이라는 조금은 감성적인 차원에서 읽어졌으면 좋겠다.

1. 새터

대화방

새터 때마다 주어지는 5~6개의 방 중에서 2개는 남자학우/ 여자학우 자는 방으로 3~4개는 게임방과 대화방으로 적절히 배분한다. 대화방이 처음 생긴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 (여를 들어 게임을 하다 지쳐서 서로 모여 이야기할 한다든지 하는)이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05년도 이후) 처음 방 배분을 할 때 미리 대화방을 만든다. 내가 가 본 06, 07년도 새터에서 ‘대화방’은 ‘게임 해서 남는 게 없다.’라는 고민과 ‘술 먹고 토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 ‘서로 잘 알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모종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운영되었다. 대화방 운영에 있어서 주의

해야 하는 것은 게임방이나 다른 전체 행사와 마찬가지로 대화방 또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학년 5학년이 된 베테랑이 아니고서야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불꽃 5반의 대화방은 으레 최고학번 선배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렇기에 새터가 진행되기 직전에 미리 대화프로그램을 짜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방에서 비교적 성공했던 프로그램은 ‘토크 상자 돌리기 - 주사위 모양의 상자를 만들어 각각 면에 대화주제를 적어 주사위를 굴리는 것’와 ‘제비뽑기 - 가장 술핀던 일, 가장 기뻐던 일, 다른 사람은 겪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일 등을 적은 제비 종이를 한손에 쥐어 돌아가면서 뽑아 이야기하기’다. 물론, 대화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처음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간다면 어색하고 미묘한 사이를 조금은 누그러뜨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보드 게임방

2007년 새터를 갔을 때 처음 운영되었던 방이다. 술을 마시며 하는 게임은 진행속도가 빨라 술을 계속 마셔야 한다는 점, 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술 게임은 어쩌면 선배라는 나이, 학번권력을 이용한 일련의 폭력일 수도 있다는 고민아래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 보드게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도하였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2. 새내기학교

뒷풀이 형식

‘술이 없는 뒷풀이를 1회 이상 한다.(뒷풀이 내용과 장소의 다양화)’

올해 새내기 학교 운영 세칙 8조이다. 술술술... 아 이러니 하고 또 당연하게도 술은 참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치명적인 문제들과 폭력을 낳는다. 매년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선, 후배간의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과연 선, 후배 관계는 권위적으로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차라리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술자리를 조금 더 수평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지배적인 대학의 술문화가 아니어도 즐거울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는게 다양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냐는 생각도 있었다.

새내기 학교 뒷풀이는 으레 술자리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간간히 아이스크림가게, 빙수가게, 카페, 모임 공간, 잔디밭 등에서 이루어지곤 하였다. 술은 대개 서로 어색하고 망망할 때 그 분위기를 모면하고자 마시는 성향이 있기에 술이 없는 뒷풀이 자리에는 서로의 어색함도 무마시킬 수 있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

새내기 학교 졸업식

새내기 학교가 끝나는 3월의 마지막 주에 이루어지는 졸업식은 무엇보다도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선배들 눈에 띄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불꽃 5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한달 동안 새내기 학교를 해왔는지 공유하고 술 없이도 즐겁게 놀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졸업식에는 각 학교에서 준비한 결과를 발표와 전체 뒷풀이가 이루어진다. 푸른색을 빌려 한쪽에 먹을 거리와 음료등을 준비하고 다른 쪽에는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결과물을 같이 보고 각자 소감을 이야기하거나 서로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by_ 버님



www.dore.com



6살 땐,

"놀자"

뭐할까

소꿉놀이 하자

그래, 난 엄마에 난 아빠할게

그럼 내가 얘기 할게

난 엄마니까 밥해, 난 아빠니까 나가서 일하고 올게

13살 땐,

"놀자"

뭐할까

술래잡기하자

어, 어 난 다리가 아파서

어? 난 달리가 느려서 맨날 술래해

뭐야 그럼 너네 둘이 짝두기 해

20살 땐,

"놀자"

뭐할까

술먹자, 뭐 할꺼 더 있냐

어, 나 술 잘 못먹잖아.

그냥 먹어 먹다보면 놀어

"놀자" 라는 말은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그 안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권력관계와 폭력성은 으레 보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놀이를 통해 사회에서 정해진 역할들을 학습했다. 재밌는 놀이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곤 절대 상상도 못했다. 같이 놀 수 없는 사람과는 관계 맺을 수 없었다. 이렇듯 지금의 놀이문화는 많은 사람들을 '못 노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누군가에게만 재밌는 놀이가 누구냐 해야 하는 놀이가 되었으며, 심지어 누군가를 괴롭히기까지

했다. 그런 덕분에 재미없는 놀이도 재밌게 해야 했고, 괴로워도 참아야 했다. 그것만이 공동체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내가 남자아이라면, 소꿉놀이에선 아빠를 해야 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해도 농구정도는 할 줄 알아야 했고, 짜증나도 옆에 서서 각두기라도 해야 했다. 그렇게 살아남았더니, 옛 친구들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주며 우정을 운운했다.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적응해야 했다. 현재의 놀이 문화에서 끊임없이 배제되고 괴롭힌 당한 사람들에게 이제 놀이는 재미없다. 놀이는 공동체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내가 어떤 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틀에 갇혀버린 세상에서, 다른 놀이들을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어진 역할과 주어진 방식, 그 끊임없는 규칙 안에서 누군가의 놀이는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재단하고 규정하고 있다. 너무도 쉽게 놀이를 단순한 일탈로, 비정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놀지 못해서 배제되고, 또 누군가의 놀이터에 나를 끼워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현재의 놀이문화는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획일화된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들을 통해 공동체 안과 밖의 경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놀이는 나와 내 주변이 관계 맺는 경험이어야 한다. 나는 놀이를 통해 나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타인의 경험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놀이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구성원들을 끌라내는 시험지가 아니라, 소통의 장, 관계 맺음 그 자체여야 한다.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놀이를 상상하는 일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구성원 모두가 놀이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구성

원 모두의 즐거움과 그들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놀이들을 상상해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놀이들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단순히 기존의 놀이에 그들을 끼워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제되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놀이를 재기 확하고 아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비정치적인 것이고, 오로지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놀이마저도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문화 안에서 누군가의 놀이는 누군가의 경험에 어긋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같이 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나의 경험이 오히려 나의 경험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나의 놀이가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때 놀이는 내 경험과 타인의 경험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놀이 문화이다. 놀이는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나의 온갖 경험들과 타인의 온갖 경험들이 어우러지는 장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상상해야 하는 놀이터에서는 무엇이든 놀이가 될 수 있다. 나를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 그것으로 새로운 경험을 체득하는 것도 놀이다.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남성중심적인 언어와 경험을 바깥에서 기존의 놀이문화에 틈을 내는 것, 내가 재미없었던, 나를 불편하게 했던 놀이들을 새로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비꼬고, 뒤돌아 보는 것도 신나는 일이다.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 우리는 놀이를 통해 더 많이 기쁠 수 있고, 더 많이 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가부장적인 틀을 깨고, 모두가 자유로운, 모두가 즐거운 더 나은 놀이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하고, 고민해야 한다.

by_ 우주전복실천단 나루기

여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을 시작하려니, 호칭부터 막막합니다. 읽는 분들이 '새내기'고 쓰는 제가 '정든내기'면 굳이 여러분에게 '새' 사람 정체성을 부여해서 내 구역에 꼭 적응해야한다는 포스가 풍긴다는 생각에서부터 내가 여기 뭐 정든 것 있나하는 뼈뺀 생각까지 들고요. 읽는 분들이 '후배'고 쓰는 제가 '선배'면 많은 집단에서 발견되는 권위적인 선후배관계에 사고가 간히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언니'가 되면 또 나이에 의한 수직적 관계가 생길랑말랑할까 고민되고요. 그저 '여학생 여러분'에 저는 제 별명인 '자몽'으로 하겠습니다. 여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자몽입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며 새로이 관계들을 여기저기 만들어가시겠죠. 그것은 과나 반일지도, 동아리나 학회일지도, 그 모두가 아닌 전혀 새로운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일들, 경험하리라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대학교'라는 머릿속의 막연한 공간이 현실로, 일상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할지도, 생각과 달라 좌절할지도, 그 와중에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그것에 기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년 더 먼저 이 공동체에 들어와있다고 해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이야기를 죄다 해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제가 해 드릴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러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주관적'인 말이나 '경험을 토대로 한' 말이 정당성을 흐리거나

신빙성을 낮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²⁾ 오히려 기존의 것과 다른 다양한 시각으로 접한다면 더 명확한 관점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학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마음을 조금씩 내보이며 말을 건네 봅니다.

1. 불편해도 괜찮아요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대학 문화'로서의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처음 만나자마자 소리를 퍽퍽 질러대는 FM에서부터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걸고 신촌 골목을 가득 메우고 춤을 추는 응원, 지치지 않고 끝나지도 않는 게임, 익숙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먹이기도 하는 술문화와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또한 '새내기 여학생'을 연애대상으로 바라보는 미묘한 시선, 자진하여 여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배노릇'하며 '오빠'로서 대접받기를 욕망하는 남자 선배와의 관계, 여학생들을 두고 '누가 예쁘니, 누구는 남자같니'하며 여성으로서의 여러분을 대상화하는 이야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학내 조성되어있는 생활공동체는 대부분 남성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은 오랜기간 남성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내 문화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사회적인 남성중심성과

이성애중심성, 가부장성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리고 순수한 여성을 좋은 연애대상으로 규정하는 이성연애 각본에 충실한 욕망을 구성해낸 정든내기 남학생들이 새내기 여학생을 '눈독들이는' 일련의 패턴은 매년 나타나는 대학 사회의 현상이고 고질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적 존재로서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학생들은 학창시절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을 권장받지 못했고, 큰 소리를 내거나 큰 동작을 하는 것에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군대문화에서 왔다는 FM을 하는 것이 곤욕스러울 수도, 여성들에게 권장되는 안전한 것이 아닌 망가지고 우스운 모습을 보여야 잘한다 소리를 듣는 용원이 쉽게 익숙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학생들을 움츠리게 하고 행동에 제약을 거는 차별과 배제가 대학내 문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학 문화 자체의 구성이 여학생들의 경험과는 동떨어진 채 이미 이루어져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이 맞는 공동체의 문화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해방을 경험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되던 것들과 많이 달라 가치관의 충돌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문화에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가치관이 옳다고 이야기되고, 그것에 억지로 끼워맞추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소외가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획일적인 주체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원래의 가치를 강요했을 때, 그 가치에 부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상처를 입은 채 학내 공동체, 그리고 그 안의 관계맺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공동체'라는 전제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여학생이기 쉽지요.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게만 열려있는 공동체는 다양한 비남성적

2) 왜냐하면, 신입생 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실테니까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확실적인 권위가 생기고, 그것이 강요와 소외를 낳는 권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나이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집단이 누구였는지, 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관찰함으로써 그 '객관성'인 것조차 권력을 가진 자의 '개인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존재³⁾, 비이성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⁴⁾, 몸의 구성이 다른 사람들⁵⁾에게 모두 소외를 낳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불편한 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낌으로서 공동체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각을 갖는다면, 불편한 건 괜찮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주어진 역할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물론 여성적인 것을 버리지 않은 채 기존 공동체에서 환영받으며 살아남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남성 공동체의 귀엽고 예쁜 '연애대상'으로서의 여학생들과, 공동체의 갖가지 분란을 능숙하게 해결하고 상처받은 주체들을 위로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감정노동⁶⁾을 도맡는 '유사 엄마'로서의 여학생들이 그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남성 주체들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연애대상'으로서의 여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의 동시다발적인 '작업'의 대상이 되고, 연애를 하겠다는 선택이 주체적이었던, 강압적이었던 연애를 시작하는 동시에 애인 이외의 남성 구성원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의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굳건한 남성 연대⁷⁾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때 비밀리에 그러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연애관계의 성, 소위 '진도'에 대한 응답패설은

남성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여학생은 애인과 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연결은 연애가 끝남과 동시에 끊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그 여학생은 생활공동체를 잃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사 엄마'로서의 여학생들은 주로 술자리에서 누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을까 살피다가 술이 푹이 되면 잘 곳을 마련해주는 것까지 말끔하게 처리합니다. 평소에는 생활공동체의 자잘한 실무를 도맡아 하고, 실연당한 사람에게는 토닥이며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동체에 내분이 일어날 때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돌봄과 감정노동이 필요한 관계 유지에 서툴러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각각

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신경써야 하는 미묘한 관계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등, 끊임없이 감정노동함으로써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감정노동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사자에 대한 배려없이 감당하도록 쏟아지는 감정노동에 지친 나머지 공동체를 떠나도 무리는 아니지요.

위와 같은 여학생의 역할은 지극히 성별화되고 성애화된 우리 공동체의 단면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유순하고 얌전하고 상냥하며 상대방(남성)을 잘 돌보아주는 것이 요구되고, 그것은 공동체 전반에 대한 요구로 확대됩니다. 물론,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학습한 결과, 한쪽 성에서 어떤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별을 기준으로 획일화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활동을 중요시하여 자신을 인정받기도 하죠.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를 성별이라는 기준으로 돌로 나누어 일방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동체에서 배제한다면 그것은 그저 집단의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생활하고,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이 행동하고자 하는 역할로서,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개입하여, 그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권을 구성원 모두와 함께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구성원 간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애 '대상'이나 엄마의 역할을 해 줄 '대상'이 아닌,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면, 연애를 하더라도 그것은 남성연대만의 일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인 두 사람의 일로서, 적어도 여학생들에게 공동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정노동 또한

3) 생물학적 남성일지라도 운동/게임/술자리 등 남성연대에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남성'이라는 중심에서 떨어진 '주변'이 되어버리죠.

4) 이성애장제성이 아닌 모든 정체성을 일컫습니다. 간단하게 LGBTQ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간성과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을라고 이야기합니다.

5) 남성의 시각에서 구성된 사회에서, '건강한 남성'의 기준을 벗어난 몸은 모두 '비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생물학적 성의 차이에 따른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은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일터에서 생리휴가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생리휴가를 받고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기존 여성의 고용이 기피됩니다. '장애인'으로 규정된 몸일 경우 이는 더욱 심한 양상을 보입니다. 취업을 할 권리는 고사하고 일상 생활에서 공간에 대한 접근권이나 이동권마저 보장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6) 타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타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 타인의 괴로움을 자신과 나눔으로서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것 등의 보살핌을 감정노동이라 합니다.

7)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남성 성별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

개개인의 특성 중 어느 것이 여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되는지, 그러한 특성에 대한 의미화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함과 동시에, 오히려 그것 나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체화하고 있는 '여성' 그 자체로서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무리하게 집착하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공동체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특정한 전제없이 평등한 관계맺음과 그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공동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바꾸지 않고 그저 그 공동체가 원하는 바에 끼워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은 악습일 뿐입니다.

3. 여성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위에서 설명한, 여러분이 여학생으로서 불편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부담으로 다가갈까? 내가 여자라서 불편하니까 남자처럼 행동해야지 라는 것으로 와전되지는 않을까 서둘러 말을 늘어놓을게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여성성보다는 공동체에서 권유하는 남성성을 자신의 것을 무기로 살아남는 '명예남성'으로서의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남성보다 더 뛰어나게 남성적일 것', '여성성을 버릴 것'이 요구되고, 처음에는 남성 연대의 일부가 되는 듯 합니다. 공동체에서 아주 잘 살아남아 '너만큼 공동체를 생각하는 여자가 없다'는 말을 들곤 합니다. 비단 이 공동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불이익을 덜 받고, 자신의 능력 발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점점 무성적⁹⁾인 존재로 만들기를 전략으로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무성적 존재가 아니며, 그녀들이 취한 가장은 결국 그녀들의 존재에 위기감을 느낀, 혹은 그녀들의 존재가 그들의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 남성 주체의 '그래봤자 넌 여자에'라는 공격 앞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으로서, 결국은 자신이 남성이 아님에 분노하고 스스로를 긍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사회 체계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이 일방의 성에게 유리하도록 짜였음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여성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정상적인 것이 아니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성이고, 우리들이 여성적일 것을 학습하고 살아온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마땅하니까요.

따라서 개개인의 특성 중 어느 것이 여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되는지, 그러한 특성에 대한 의미화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함과 동시에, 오히려 그것 나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체화하고 있는 '여성' 그 자체로서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4. 공감과 지지는 소중합니다

여성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여자들의 모임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들은 특하면 파를 나누어 서로 흥분다'는 문구는 역사가 오래되어 언제부터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군요. 뼈뺀 시선을 치우고 그저 관계맺음에서 친밀성을 중시한다는 특성으로 서술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녀들은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는 말은 여성들 간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건 그것을 한마디로 평가절하합니다. 이때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제기해야하는 것이겠죠. '그녀들에게 진정한 우정은 없다'는 우정이나 아니냐를 남성적인 시선으로 재단해낸 것, 그리고 그것을 재단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¹⁰⁾에 놀라움을 표할 수밖에 없군요.

이 사회는 여성들이 모이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포장해 놓지만 속속들이 관찰하고 세밀하게 성찰하면 하나하나 보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의 틈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되고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부당성을 깨닫게 되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여성 연대가 함께 행동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될 것을 경계합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교육하고 공고하게 유지하

9) 대부분의 공적 영역은 여성의 경험에 배제된 채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여성적인 특성을 겉으로 드러하지 않는 것이 '잘 적응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기 쉽지요.
10) 다른 많은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은 그 시공간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성됩니다. 가까운 예로, '순결'에 대한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을 겪어왔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11)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계맺음을 하고, 그것에 자기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입니다. 누군가의 기준, 혹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다양한 관계맺음을 단순화하고 우정이 아니냐 맞느냐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는 전략을 취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성임에도 여성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남성 중심성이 확 깔려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여성 개인이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된 언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남성적 구성은 놀이문화, 생산과 소비문화, 정치, 역사 서술, 학문, 관계맺음과 같은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남성의 서술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에서 서술된 이야기는 평소에 들던 이야기들보다 '편향'된 것, '주관'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 나 자신의 경험과 맞닿는, 처음 만나는 공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 기반을 쌓고, 상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 더 좁히면 어느 단과대 소속의 여학생들, 더더 좁히면 어느 과/반/동아리/학회를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그녀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농담'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자 선배에 대한 불편함, 밤새워 술을 마시지 않으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핀잔을 듣게 되는 술자리에

여학생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공동체를 박차고나갈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뛰쳐나오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잃고 소진하여 텅 비어버리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체적이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대한 불편함, 멋대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생활공간에서 늘어놓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불편하기는 하지만 대놓고 '싫다'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나눔으로서, 나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것 자체가 서로 힘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어떨까요? 엄마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자기 몸 이야기를 하며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무언가가 내 친구에게도 그런 경험이었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깔깔대고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여성으로서 금기시되는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정숙한' 여성을 바라는 사회가 만들어낸 나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기 위해 화학물

질로 하얗게 하얗게 약품처리해낸 일회용 생리대나 탐폰에 독성물질이 들어있다는 놀라운 정보를 나누며,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여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쓸데없다'고? 이러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변'의 위치에 있기에 '공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아 우리의 기억과 경험과 역사에서 삭제되고 마는 여성들의 경험은 자꾸자꾸 언어화하여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이 아니기에, 주목받고 공감받고 손잡기 힘든 여성 연대를, 그 안에서 썩트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는 지지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여학생들이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여학생들이 경험한 것을 여학생들의 목소리로 의미화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자기공정을 만들고, 지금의 여학생을 비가시화하는, 성차별적인 학내를 변화시킬 힘이 모일 것입니다.

여학생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공동체를 박차고나갈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뛰쳐나오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잃고 소진하여 텅 비어버리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체적이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공동체에 남아야만 한다는 강박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하나의, 어느 특정한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이, 여러분에게 그저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긴 글을 줄입니다.

by_ 여학생들의 반박거품을 사랑하는 자당



당신에게 보내는

여학생 생활 백서

대학에 처음 입학하면, 그 자유롭다는 대학문화에 '잘' 적응해서 '잘' 살길 바라는 게 당연!
그러나 말만 자유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술자리의 놀이문화까지 뭐 하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꼭 이 백서를 읽어보세요.
사실 내가 불편할 때 마다 매년 왜 내가 불편하고, 무엇이 나를 분노케 하는지를 꼼꼼히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너무 많이 설명해서 더 이상 말하기 힘들 때 가끔 힘도 아낄 겸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다.

초보적인 여학생 생활 백서! 시, 작



- **구두를** 산었는데 미친듯이 뛰면서 응원할 것을 요구할 때,
아픈 척하면서 재빨리 다른 골목으로 숨는다.

- **불필요한** 스캔들이 있는 게임을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려 할 때, 과감하게 다른 게임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자.

-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게임과 법칙이 등장할 때, 무호응으로 일관하자. 법칙 낙후시키기

- **누군가가** 먹기 싫은 술을 강요하면 빙자마자 술잔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치면서 술잔의 술이 빈안
남도록 한다. 가끔 안 보일 때 재빨리 술을 밀구는 것도 시도해보자.

- **새터에서** 잠이 오거나 쉬고 싶을 때, 여학생방에 들어가자. 여/남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2-3방을 여학생방으로 침겨해주자.

- **공강시간에**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여학생 수계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자.

- **과방,** 동아리방, 반방에서 응당패션이 오갈 경우, '아직도 그런 후진 이야기하니?' 라고 까칠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럼에도 사그러들지 않을 때에는 직접적인 문제제기법에 방법이 없다.

- **술만** 마시고, 대화는 전무한 영티가 질릴 때, 대화하며 함께 즐기는 방식을 아는 친구들끼리 또 다른 영티를
가보자. 이미 몇몇 곳에서는 여학생영티를 진행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전, 경험, 불편함을 함께 공유할 사람이 필요할 때, 이미 이것들을 겪었던
여자 선배들에게 SOS를 친다.

- **오래있기** 싫은 술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집에 일이 있어요.' 라며 술자리를 나간다.

- **강의실에서** 성폭력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총여학생회나 학내 성폭력 상담실로 분노의 메일을 보낸다.
올 해 총여학생회에서 시행할 새로운 강의평가서에도 한 번 적어보자.

- **나의** 복장이나 '잘' 갖고 만지를 걸 때, 알아서 다른 화제로 돌리도록 남의 외모에 대해 말가림부하는
인간은 깔끔하게 무시해준다.

- **'오빠'** 라고 부르기 싫은데, '오빠' 하라고 할 때, '네 그렇게요 선배' 라고 선배를 강조해서 말한다.

- **끊이지** 않는 연애관장에 진절머리가 날 때,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말해준다.

-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여성상위사태가 되었다며 별소리를 할 경우, 임금격차/가사노동비용 등 그 별소리가
별소리임을 증명하는 기사를 해당 공동체 커뮤니티에 퍼다 나른다.

-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스캔들을 은근슬쩍 시도할 때,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른 뒤 '제가 간지럼을 많이
타서요, 순간 얼으면 간지러워요.' 라고 말해준다.

p.s. 여학생들 사이에서 나눌 이야기들은 입학 초부터 많아진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서로 말아놓고
지켜볼 수 있는 여자친구들의 모임을 만들어보자. 이 백서를 실천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남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어색할지도 모르겠어요. '재는 남성인데 왜 저가 페미니스트라고 할까?' 라는 의문을 갖겠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충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경험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 글안에 다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 지든지 간에 이런 내 경험들이 결코 그저 나만의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기어코 나는 그동안의 고민들을 실

컷 풀어낼 겁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나는 '평범한' 남자에었어요. 그냥 공부는 좀 하는데, 좀 놀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크게 미움도 받지 않으면서 혼자만의 세계도 적당히 있고, 물론 연애도 짝짝깔깔 했어요. 선생님, 부모님 몰래 담배피고 혼자 멋있다고 생각하고, 술 먹을 줄 알아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가 주고 그런 애였어요. 누구나 그랬듯이.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듯이. 즐겁다고 생각해 본적은 별로 없어요. 나는 그저 입시를 목표로 돌진하는 수험생중 하나였으니까. 그저 대학만 가면 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나는 정말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모르는 음악을 찾아 듣고는 혼자 우쭐해질 때, 난 좀 특별한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난 정말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난 항상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관계맺기가 웬만큼 cool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엄마, 왜 밥 안 해놔. 식구들 다 배고픈데 엄마 좀립다고 그냥 자면 어떡해

야,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난 슬프지만 울지 말아야지.

야 개 좀 이상한 거 같애. 어디 아픈가? 개가 쳐다 보면 좀 무섭지 않나?

넌 무슨 여자애처럼 분홍색 타령이나. 남자들의 세계가 있는 거지. 너무 참견하지 마.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대. 군대나 가자. 남자들이 끼리 징그럽게 뭐하니.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내 일상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배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난 정말 누군가에게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죠. 아빠의 '아내' 이자, 나와 동생의 '어머니' 이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며느리' 였을 뿐이었죠. 나는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착각이었어요. 나의 말들에, 내 행동들에 엄마는 없었어요. 물론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기도 해요. 남성들의 관계로부터 여성을 호명하는 것. 언제나 누군가의 '여자친구' 누군가의 '누나' 누군가의 '여동생' 만 있었던 거죠. 심지어 나의 애인도 '나' 라는 남성의 애인이었던 거죠.

군대를 갔다 와야지 사람 된다는 말 일리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누군가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거예요. 군대에 갈 수 없는, 또는 가기 싫은 여성들, 동성애자들, 장애인들 모두가 나에게 '사람' 이 아니었던 거

죠. 내가 '군대에 갈 수 있는 건강한 남성' 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몰랐어요.

연애는 당연히 여/남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남자끼리!'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거죠. 이성과 사랑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해서, 나 아닌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외엔 상상조차 못했어요. 나에게 동성애자는 판 세상 사람이었죠.

남자라면 태어나서 세 번 우는 건 좀 심하지만, 찌질하게 아무렇게나 울고, 슬퍼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자신의 감정을 긍정하지 못했고 억압했던 거죠. '남자가 왜 울면 안 되지? 남자인가.' 라는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문답을 성찰해 본적이 없다니, 심하죠. 내 일상의 전반에서 누군가를 부정해왔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성찰 없이,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일상' 인 것들이 배제되어 왔던 누군가에게는 그대로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혐오가 되는 것이죠. 이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껏 내 안의 '남성성' 을 성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스스로에게 분노를

행복한 공동체는 각각의 경험들을 중요

시하고 그 경험들의 차이에 기반하여 함

께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나와 너는

하나일 수 없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죠.

하지만 나와 너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누군가

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

로 다름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힘이 생긴

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죠. 마치 이제껏 살아
왔던 나의 삶이 거짓이고, 내가 했던 말들이 다 폭력
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런 불편함은 내
가 비로소 여성주의 언어로 말하고, 여성주의적으로
관계 맺고, 또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할 수 있
게 되면서 사라졌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
서 내 기존의 언어들이 깨지고 불편한 것은 당연하
고 건강한 것이죠. 나를 재구성하고, 내가 누구인지
성찰하는 일은 고민하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를 성장하게 했죠.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불편하기 때문일 거예
요. 술자리에서 누군가 술을 그만 먹고 싶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의의가 없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술을 그만 먹고 싶기 때문인 거죠. 우
리가 이제껏 말하던 언어는 누군가를 커다란 무언
가에 하나 되게 하는 언어들이었어요. 각각의 경험
들 보다는 하나의 큰 의미가 중요했던 거죠. 나는
머리를 기르고 싶었고, 내 친구도 그러고 싶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학생에게 강요되는 '단
정함'이라는 큰 의미 앞에 삭발을 감행했죠. 늦도록
친구와 수다 떨고 싶었지만 학생은 집에 일찍 들어
와야 한다는 아버지의 '큰 의미' 때문에 그러지 못
했죠. 대학에 가기 싫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싶었
지만, 학생은 대학에 가야한다는 '큰 의미' 때문에
누군가는 억지로 학교를 다녔죠. '큰 뜻을 위해서
누군가의 경험들이 무시되고 배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 거예
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말들을 열심히 일상에
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공동체는 각각의 경험들을 중요시하고 그
경험들의 차이에 기반하여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나와 너는 하나일 수 없어요. 나는 나고 너
는 너죠. 하지만 나와 너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성찰하
는 과정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힘이 생
긴다는 거죠.

끊임없이 상상해야 해요. 나의 언어가 어떤 맥락
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의 불편함들을,
모두가 행복하지 않음을 어떻게 깨뜨리고 다른 것들
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상상해야 해요. 이건 누군가
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이 사회의 부당한 틀
에서 해방되고, 또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기 때
문인 거죠.

단연코, 나는 행복해 질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으
니까, 나는 무엇이 더 나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공
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
지 고민해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내가 살아가
는 공동체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by_ 아직 못 다한 말이 너무 많은 페미니스트 남성, 나루기 품

느꼈어요. 더욱 힘들었던 것은 이런 내 분노들을, 내
경험들을, 내 깨달음들을 내 이야기로 풀어낼 언어
가 없었던 거죠. 기껏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
시해왔던 것 같아.' 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답답했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었고, 왜 그걸 인식조차 하지 못했으며, 결국
에는 왜 이 이야기들을 말 할 수도 없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남성적인 언어를 습득해왔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학교에서
도 학원에서도 친구들과의 수다에서도 나는 남성중
심적인 언어로 말했어요. 그거였죠. 내 경험과 내
일상 안에 있는 언어는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점점
말문이 막히고, 내 이야기가 '괜히 시비거는 예민
한' 이야기가 되는 공간속에서 결국 침묵만이 살 길
이었죠.

나는 말하고 싶었고, 새로운 언어를 욕망했어요.
그 욕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강
의를 신청했죠.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
적이라는 것을 알았죠. 내 경험들이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
성에중심적이고 비장애인중심적인 사회에서 내가
'정상' 취급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 폭
력이고 억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할 수 있
게 된 거죠.

퀴어¹⁾와 퀴어한 당신²⁾에게 보내는 편지



이 자료집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앞에서 두 가지 편지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남학생에게 보내는 편지. 만약 이 두 가지 편지만으로 끝났다면: 커플 티셔츠를 사러 갔는데 커다란 남성용 티셔츠와 작은 여성용 티셔츠를 세트로 팔고 있을 때의 짜증, 정작 필요한 성병 예방 교육은 뒤로 하고 나오는 상관없는 여성과 남성의 섹스 도중에 지켜야 할 피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짜증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화했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간주되는 당신은 그 편지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도착하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다. 게이인 당신은 편지를 받아보기는 했으나, 당신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성애적이지 않다'는 눈총 때문에 삶이 고달픈 이성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성적정체성, 성별정체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고민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성애중심적 학내에서 살아가기가 불편하고, 까다롭고, 귀찮다고 여기는 퀴어와 퀴어한 당신들에게 두루뭇살하고 추상적이고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학내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공동체는 바로 반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읽었을 테니 넘어가자. 당신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이 퀴어라는 사실을 눈치 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같은 퀴어가 아닌 이상, 사실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트랜스젠더인 당신에게 "야, 너 여자에 같애~"라는 '농담'을 던지고, 농담이 지나쳤던 것 같으며 사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레즈비언인 당신에게 "언니니까, 괜찮아~"라면서 진한 스킨십을 해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나 여자 맞거든!"이라거나, "언니라서 더 안 괜찮거든요!"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릴 수는 없다.³⁾ 이럴 때는 나 개인의 성/성별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환원시키지 말고,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미 어디서인가 들어봤을 공동체 자치규약에는 성별정체성, 성적정체성에 대한 회화화에 대한 이성애중심주의 문제제기 조항이 있다.

지금 막 사람들을 처음 만난 당신 혼자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면, 선행들 중에서 자치규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

는 없다. 필자 역시 새내기 시절에는 문제제기 한번 못하고, 그냥 반을 뛰쳐나왔다. 그 자리에 퀴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는 사람들 속에서, 필자는 그저 침묵하고,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고 나서 느낀 것은, 침묵은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나는 커밍아웃하지 않고도 그 안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해볼 만한 것이다.

만약 문제제기가 묵살된다면, 그 곳은 당신이 꼭 있어야 할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다. 아무리 처음 만난 오리 엄마 같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에게 '좀 더 여자답게 살아라' '남자답게 힘 좀 써봐라'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거나, 잊지도 않은 가상의 이성 친구를 만들어 떠돌아야 하는 공동체라면, 당신은 떠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멋대로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지, 살아남아야 하는 곳은 아니다.

2. 공동체 찾아 나서기

당신이 LGBTI라면 학내 성소수자 공동체 컴루게더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재 컴루게더는 점심 번개, 세미나, 신문 발행, MT, 총회 등 기본적인

1) 기묘한, 기이한이라는 뜻을 가진 Queer는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경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동성애자 운동에서 이 단어를 오히려 이성애중심주의에 대응하는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성소수자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LGBTI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퀘스처언을 나타낸다.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바이섹슈얼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체성 전환자, 인터섹슈얼은 간성, 퀘스처언은 아직 자신의 성/성별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성/성별 정체성은 이런 5가지 구분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지도, 단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정체화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2) 퀴어는 LGBTIQ를 나타내는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중심주의의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편견, 성별 역할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는 퀴어한 이성애자까지 포함하여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 퀴어한 당신은 바로 이러한 이성애자를 일컫는 뜻으로 사용된다.

3) 커밍아웃은 앞으로 미칠 영향에 충분히 대비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커밍아웃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발간한 커밍아웃 가이드를 참조하라. 직접 찾아가서 받을 수도 있고, 총학생회장실 내부에 있는 페미니티에도 비치되어있다.

반활동과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미 학교생활에 경험이 있는 LGBTIQ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퀴어로 학교 살아가기에 대한 좀 더 세세한 Tip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뭐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과는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는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최소한 이성애자인척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운명이 당신 편이라면, 당신의 사랑을 이곳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쉽게도 컴퓨터 가입조건은 LGBTIQ에게만 해당한다. 아무리 퀴어한 당신이라도 이 사회에 호모포비아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퀴어들이 퀴어한 당신을 알아보고 모두 커밍아웃을 할 수는 없다. 퀴어한 당신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퀴어스러운 당신, 퀴어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학교 밖의 퀴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취미 활동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다. 굳이 학교 밖까지 나가지 않고 퀴어스러운 삶을 함께할 친구를 찾는다면, 그저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있는 다른 공동체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총여학생회에서 이성애중심주의에서 고민하는 탈이성애중심주의 운동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함께 학회를 꾸려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3. 학교에서 생활하기

학교의 생활해나가기의 대부분은 수업이고, 그 수업 안에서 퀴어와 퀴어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이 이리저리 튀어나온다. 게다가 기독교가 건립 이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를 방패삼아 자신의 호모포비아를 표출하는 교수들도 종종 존재한다. 특히 기독교의 이해 수업을 듣는다면 신, 중, 히. 교수님을 선택해야 한다.

어떤 수업에서는 종종 수업의 주제로 '동성애'를 다루며,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그 수업에 동성애자가 앉아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변태'라고 거침없이 부르거나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듣고 있을라치면, 변칙 손을 들고, "제가 변태로 보이십니까?" "전 이성애중심주의의 길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신경 끄고 본

인 인생이나 챙겨주시겠어요?"라고 자근자근 밟아주고 싶다. 하지만 무리라는 걸 당신도 알지 않는가?⁴⁾

그래서 필자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교수에게 메일을 쓰기도 했고, 찾아가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어떤 교수는 수업에서 사과했고, 어떤 교수는 문제제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문제제기 한 후의 필자의 마음은 편했다. 그나마 "할 말은 한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정도.

자신의 메일 주소를 남기거나 직접 찾아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나 총여학생회로 연락해라.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공간은 아니지만, 당신이 문제제기하고, 사과 등의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수업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카운슬링 혹은 공감받을 수도 있다.

4. 학교 밖으로 나가기

학교에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학교에서 퀴어스럽게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들다. 아웃팅 될 수도 있다는 압박은 어디에나 따라다니고,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기란 너무 위험하다. 사실 '나는 개방적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자신의 주위에 퀴어가 존재한다고 하면 기겁을 하거나,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호모포비아적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퀴어스러운 당신, 퀴어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학교 밖의 퀴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취미 활동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다. 굳이 학교 밖까지 나가지 않고 퀴어스러운 삶을 함께할 친구를 찾는다면, 그저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우리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들처럼, 서로를 알아보기도 하고, 어디에 가면 마법사를 만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만명이 다니는 학교 안에 당신의 시선에 들어오는 퀴어 한명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것이다.

by_ 연세 속의 지렁스러운 퀴어 환타

4)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성애자들 중에서 '나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퀴어들은 왜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 사는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걱정된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문에게 가서 친절한 표정으로 '나 레즈비언/게이/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해보길 바란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20대 총여학생회
성금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

tel: 02-2123-3645

mail: action-fem@yonsei.ac.kr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총여학생회실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말이고,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거부감을 주는 말이며,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향성을 제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성주의는 성을 매개로 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가치관입니다. 가부장제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성을 매개로 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 체제를 일컫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이며 학내 공간 또한 그 가부장성에서 벗어나있지 않습니다. 강의실, 반방과 동아리방, 새터/OT 등의 학내 생활공간에서 매해 끊이지 않는 성폭력 사건과 '연세인'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여성배제적인 운동경기 등의 학내 행사들, 남성성을 강조해야 하는 웅원과 FM은 물론, 학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동성애혐오 발언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 등은 가부장성이 우리의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학생 대표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삶 곳곳에 스며있는 권력관계를 성찰하고 그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함으로써, 여학생 교육권을 확보하고 여성배제적인 일상을 문제삼는 등, 우리의 생활공간인 학내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는 '성금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를 그 기조로 하여 여성주의적인 일상을 만들고, 생활공간에서 여성주의가 이야기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의식을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하였을 때에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리라 믿으며, 여성주의가 생활공동체와 맞닿는 지점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언어로 간담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에서는

1. 학습권을 침해하는 강의실 언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운동과 여성주의적인 새터/OT 및 농활 만들기를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해나가며, 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2. 현 사회구조로서의 이성애중심주의의 억압을 알려나가며 학내 이성애중심성의 폭력을 짚어내고, '탈이성애중심주의'의 활동을 통하여 그 부당함에 대한 학내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 다양한 문화생산물의 여성주의적인 재해석과, 그에 기반한 문화생산물의 재생산을 꾀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여성주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만드는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여성주의 놀이터'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4. 여성제를 기획하여, 구성원 각자의 지점에서 나오는 여성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모아 즐거운 에너지를 공유하고, 그것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5. 학내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학내 공론화에 앞장서고 직접적인 연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숨 쉬어야 하는 나의 경험들이 누군가에 의해, 어떤 공간에 의해 숨을 거두고 있다면, 왜 그럴까? 왜 그렇지? 라고 노래 불러야 한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한다. 더 이상 나의 경험을 죽이는 사람들의 언어로는 내 감정을 내 상상을 내 일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주의 언어를 말한다.

여성주의 언어를 체험하고 습득하는 것은 단순한 책읽기와 토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여성주의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놓여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상상되어야 한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만나고, 그 접점에서 소통할 수 있으며, 거기서부터 여성주의 언어가 싹튼다.

주말엔 총여학생회와 수다 떨며 놀기

매주 주말 일상에서의 고민들을 여성주의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모여 수다를 떠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간다. 이런 소소한 활동들을 통해 학내/외 이슈들을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풀어내는,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 그 신나고 힘나는 수다 속에서 누군가의 고민이 그리고 누군가의 욕망이 온전히 상상되고, 또 다른 공간으로 뻗어간다.

총여학생회야, 놀러와! 라고 말해요

단 하루 뿐일지도 모르고, 또 여러날일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일상적인 고민들, 불편함들에 대해 여성주의 언어로 물어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총여학생회와 함께 할 수 있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주말세미나든, 일일세미나든, 노닥노닥, 이야기를 풀어보자. 마음껏 읽고, 재주껏 말하고, 실컷 듣자. 이미 수다는 시작되었다. 눈물이든 웃음이든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해보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총여학생회와 세미나를 하고 싶은, 그 수다의 장에 꼭 빠지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거침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action-fem@yonsei.ac.kr에 메일을 보내고, 02-2123-3645로 전화를 걸고, 학관 3층 총여학생회실 문을 두드리자. 그러면, 여성주의로 상상하는 새로운 공동체, 그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일일만남
주말만남

여성주의

탈이성애중심주의 운동팀

우리 “이성애중심주의”의 틈을, 누벼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알고 말구요.

모두를 이성애자로 규정짓는 것이 지겹지요?

외모만 보고 남성, 여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치지요?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이 둘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달 나는 인간들이 짜증나지요?

LGBTSI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ed, Straight, Intersex and Questioning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이성애자, 인터섹슈얼/간성,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성정체성들이 그 존재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탈이성애중심주의 운동팀에서는 이성애중심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고,

나도 모르는 나를 알면서, 김 위의 소금 가루처럼 재밌고 고구마처럼 알찬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 될 지는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달려 있지요.

지금 바로 저에게 손발을 내밀어 봐요. 제가 한번씩 잡을 테니.

!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갑시다.

탈이성애중심주의 운동팀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이성애 정체성을 옹고

그들의 문제로 ‘판단’하려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고 싶으신 문은 지금 바로 action-fem@yonsei.ac.kr 로 메일을 눌러주세요.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는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분홍색 문을 똑똑 두드리고 ‘페미니리’ 사용하러 왔어요! 한 마디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 채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읽고 싶고, 느끼고 싶어 차곡차곡 모아온 여성주의 서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소소한 질문에 답을 줄 여성주의 입문서에서부터, 주체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에세이와 여성의 시각에서 서술된 소설책들, 그동안 담론으로 구성되지 않던 여성의 몸, 여성적인 것, 여성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관계맺음을 세밀하게 성찰하는 여성주의의 작은 목소리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고방식을 뒤집어보고 해체해내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을 비롯한 모든 이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니리의 책 한 권 한 권에 스며 있습니다.

책꽂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편안한 독자의자에 앉아 책을 읽기를 택하실 수도, 대어목록에 도서명을 적고 2주간 빌려보기를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관 계단 사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페미니리 홍보 웹자보에 첨부된 도서목록 파일을 보고 전화로 요청하시면 총학생회 집행부가 학생회관 앞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여성주의에서 여러분만의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소모임소개

공대 소모임 "물음표"

공대 여성주의 소모임이에요. 올해 처음 시작한 햇병아리 모임이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 물음표를 달아보고자 해요. 공대에서 생활하다보면 공대 여자라는 편견, 강압적 스펀와에 끼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는 뒤떨어, 치마 좀 입고 화장 좀 하라고 놀리는 동기들,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선배 등등.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이런 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과 고민이 하나 둘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좀 아니다 싶지만 각자 마음 속에 품고만 있는, 감히 대놓고 꺼내기 힘든 물음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음표들을 공유하고 우리의 일상이 곳곳에 당당하게 물음표를 달아보아요.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동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풀이 되는 일상속에서 감자를 못 잡고 있는 우리, 그저 의지로 자신을 억누르며 적응하고 있는 우리, 그런 상황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들만의 고민을 털놓고 이야기할 곳이 필요합니다.

'물음표'의 학기 중 활동은 물음표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얽힌 각자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가볍게 시작합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나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함께 울고 웃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슬슬 수다에 재미가 붙으면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갖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요. 때로는 다

른 모임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 행사에도 함께 참여할거예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함께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즐겁습니다.

공대 여러분, 우리 공감해요! 콧속 숨겨놓기에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성별, 나이, 학번, 전공 그 어느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마음껏 털어내고 울고 웃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D 우리 같이 멋진 물음표를 그려봅시다~^^



문과대 철학8반에 속해있는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소모임입니다. 2006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저희 소모임에 관해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보자기는 3월에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2007

년에도 했었고 이번 해에도 알차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그 주의 주제에 관한 커리를 읽고 토론을 해요. 커리와 세미나만 있다면 좀 지루하겠죠? 그래서 세미나 외에도

여성주의와 관련된 영화나 공연을 보기도 하고, 간담회나 외부 행사에도 참여합니다.(총 여학생회에서 하는 문화제나 세미나도 있겠고 여성영화제, 달빛시위 등등이 있지요.) 그리고 다른 여성주의 모임과 활동을 같이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자기방어 훈련 같은 운동을 같이하고 싶어요 ^^

앞으로도 보자기가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모임소개

여성주의 소모임 "보자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강요되는
수많은 조건에 스스로를 가둬야 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부터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특정한 가입 양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학내의 여러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체입니다.

2006년 겨울에 문과대에서 페미니즘 세미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꾸러졌으며, 이후에도 방학마다 사람들을 모아 페미니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2007년에는 99주년 3.8 여성의 날 기획단을 꾸려 학내에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으며
여름방학엔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 하고,
2007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여성노동권' 분야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을에는 여름방학에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시기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와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엘리스와 함께할 엘리스를 찾습니다 ^^
<http://alice-ym.cyworld.com>



소모임소개

여성주의 네트워크
"엘리스"



소모임소개

사회과학대 여성주의
소모임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사회과학대에 부른 꿈을 안고 입학했
던 새내기 때, 많은 것들이 궁금하지 않았나요? 왜 과/반에
넘쳐나는 '오빠'들과는 달리 언니들은 찾을 수 없는 것일까? 농구장에 가득 찬 남성들 말고,
함께 땀 흘리고 싶은 여자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경
험들을 '강요된 술자리'가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풀어낼 수 있는 경험을 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요되는 FM과 응원이 함께하는 술자리가 불편했던, 강의 중에 일상적으로 접하는 언어성
폭력이 웬지 모르게 기분 나빴던 당신! 이 모든 경험을 같이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단출한
소모임을 꾸려볼까 해요.
자신의 고민에서 시작된 경험들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끔 같이 영화도 보고, 좋은 책
이나 글귀도 나누고, 그리고 가끔 숨어있던 내 몸의 근육들과 함께 운동장을 미친 듯이 뛰어
보기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보려고해요. 이 모임은 학년과 나이와 성별과 성
적지향과 출신국가와 가족 형태 등등에 기반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에요.
'여성주의'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어색하지만,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지 환영이에요. 손전화(010 4499 0052:송이송)로 연락주세요! 함께 포물포물 키워나가요!

나는 나비처럼 날아올라 비처럼 내린다.

신과대 여학생회는 지난 2006년 초대 여학생회가 구성된 이후, 이제 3대째입니다. 대다수가 남학우인 신대이기에 오히려 여학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통로로서 학생회라는 독보적인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초대 여학생회가 원년의 의미를 지니고, 2대 여학생회가 실질적인 기초를 닦았다면, 3대 여학생회는 보다 든실하고 체계적인 1년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여학생회의 모토는 나.비.효.과.입니다. 나.비.효.과.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허리케인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비.뿜되는 작은 변화들이 세상을 변화 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나.비.가 되자'의 준말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나'라는 주체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하자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회의 활동은 그런 나비

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간 여학생들만의 특별한 MT가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게임으로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그 분위기 그대로 서로 친해지고, 저녁과 간식을 나누고, 밤새 촛불을 켜고 새벽까지 수다를 떨다가 새근새근 같은 이

불 아래서 잠이 든 경험은 아마 대학생활에서 첫손에 꼽히는 이색 MT가 아

니었을까 생각합니다. MT에 참여한 여학우들의 열렬한 요구로 올해도

그와 같은 MT가 보다 특색 있는 주제로 두어 차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여학생회와 같이 가는 MT뿐만 아니라 여행지나 여행의 목적이

같은 여학우들을 연결 시켜주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무

살이 넘은 성인일지라도 아니, 성인이라서 여학우들은 혼자 날

름 여행을 떠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것을 하고,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여학생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

간지의 발행과 여학생 동기 앨범 제작입니다. 계간지는 서로 만

나지 못했던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세계

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지 등등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

아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기 앨범은 지금 같이 웃고

같이 울었던 내 동기, 언니, 동생들은 모두 볼 수 없는 졸업앨범의 단점을 보완

하고, 서로가 고른 사진, 일상적이고 개성적인 사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서로 나누어 추억을 공

유할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소통의 장이 여학우들만을 위해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

고, 계간지에 글도 담을 수 있고, 당연히 동기 앨범에 같이 사진을 실을 겁니다. 또 아직 내용은 비

밀인 여학생회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1년이 있는 여학생회가 할 수 있는 소개는 약속 밖에 없습니다. 1년

이 지난 후 마지막으로 제3대 신과대 여학생회 나.비.효.과.를 소개할 때는 이 약속들을 모두 이루

었다고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은 나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 club.cyworld.com/yswtheology / 설나라 011-332-5922

소모임소개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는
물.구.나.무

물구나무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안에 있는 여성신학동아리입니다. 여성신학에 대해 여 실제 신과대 안에 개설된 강의도 매우 부족하고 또한 여성의 방식과 기독교를 함께 실천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물구나무는 함께 이야기하는 마당을 함께 열려고 합니다.

'여성신학'은 뭐냐고들 많이 묻지요. feminist theology 라고도 부르는 여성신학은 신학을 여성들의 관점과 성별적인 요소 그리고 여성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을 하는 '여성신학'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이나 사역자 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성주의적인 문화가 도처에 있고,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지요. 많은 평신도중에 여성들이 많지만 평신도와 사역하는 곳에서는 많은 남성목회자들에 의해 그들의 시각으로 해석되는 성경과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물구나무는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류적 신학, 주류적 가부장제에 도전하며 여성으로써 물구나무에서 소리치기 위하여 같이 활동하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관계맺기와 실천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하느님어머니가 어색하지 않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신과대분들 및 기독교학생들, 여성신학에 관심있는 여러 학우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물구나무에 문을 두드리세요. 동아리명: 신학과 지하1층 동아리실 문을 여시면 뵈실 수 있습니다.

소모임소개

연세대학교 여성합창 공동체 "I WILL"

2007년 9월 정기대공연

연세대학교 유일의 여성합창 공동체 「I WILL」
Hip-Hop의 자유 정신을 지닌 춤추는 여자들이
모인 이곳!!

I WILL에서 함께할 새로운 아워를 찾습니
다! 무료한 일상을 탈출하고픈 당신! 몸이 꿈틀
꿈틀거리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당신도! 몸
치,박치를 탈출하고픈 당신까지도, 우리 아이월은
환영합니다! 춤에 대한 열정과 춤을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 바로 I WILL의 문을 두드리세요.

I WILL은 여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에서 진정
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동아리입니다. 매주 정기적인 연습과 공연활동을 하
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Hip-Hop과 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I WILLER가 될 충분한 자
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관심있으신 연세대 여학우는

싸이월드 공개 미니홈피(www.cyworld.com/iwill1999)에 들려주시거나,

손전화(우루:010 4499 0052)로 문의주세요~



레즈비언의 PC한 살아남기를 모색하는 즐거운 공동체 '숙자씨' (가)

숙자씨는,

여성으로서, 동성애자로서, 레즈비언으로서, 여성주의자로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삶을 고민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레즈비언 운동 단체입니다.

숙자씨는,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가부장제를 반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을 지속시키는 이성애중심주의를 반대하고, 여성 상품화와 환경 파괴를 실화시키는 소비자
본주의를 반대합니다.

숙자씨는,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언어를
차별 금지 범주에서 제외한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새로 등장한 2MB시대에
레즈비언의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터나 오티 자리에서 레즈비언 혐오 발언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레즈비언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blog.naver.com/pclesbian

pclesbian@hanmail.net 으로 연락주세요.



Jane knows Connie. She doesn't care to know Dick.
from Jane's Corner by Jane's Corner

소모임소개

즐거운 공동체 "숙자씨" (가)

여성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



어떤 느낌을 설명하려고 애쓴 기억들 모두 있으시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 냅니다.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성주의에서도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 냅니다.** 여성주의를 책을 접하다보니 단어들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글들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되기를 바라며 어설프게나마 **여성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설명**해보았습니다.

여성/남성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길러진다. 여자 아이는 잘 싸우는 것보다 우는 것이 어른들에게 잘 먹힌다는 것을 배우고 남자 아이는 우는 것보다 잘 싸우는 것이 어른들에게 잘 먹힌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권장되는 여성성과 남성성마저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여성주의에서 사용하는 "여성/남성"은 생물학적인 성별(sex)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젠더(gender)를 뜻한다.

주체 어떤 이를 주체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누구의 아내', '누구네 엄마'로만 불리는 데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여성은 주체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체성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이름 짓는 방식이다. 한국인, 여성, 사회주의자, 레즈비언 등 여러 정체성이 있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정체성이 의미를 가질 때에는 보통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특정한 범주가 확연히 느껴질 때이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하면, 다른 나라사람들과의 차이점과 같은 나라 사람들 간의 동질감을 통해 자신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쉽게 압하게 된다.

권력관계 보통 사람을 따라면 경찰서에 간다. 하지만 선생이 학생을 따라가거나,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따라가거나, 남편이 아내를 따라갈 때는 '심할 때'만 경찰서에 간다. 이를 가늠케 하는 것은 각각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권력이다. 이렇듯 이 사회에는 다양한 권력 관계(성별, 나이, 재력, 성적지향, 학력에 기반한 권력관계들이 존재한다.

관계맺음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모든 과정을 관계맺음으로 볼 수 있다. 만나는 사람의 위치(나이, 성별, 지위에 따라 관계 맺는 방식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대할 때와 친구를 대할 때는 언어, 행동, 내용이 달라진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많은 권력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대상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텔레비전이나 책자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만을 늘어놓는다.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생각이나 가치관 일말의 고려도 없이 얼굴, 몸매 같은 성애화된 기준으로 상품을 대하는 것처럼 감상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가부장성 가부장이란 아버지(남성)가 가정(혹은 사회)의 대장이라는 뜻이다. 가부장적이라 할 때에는 성차별을 유지하여 남성에게 유리한 현재의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려 함을 뜻한다.

남성중심 이 사회에서 남성적이라고 인정받는 가치들(중성충이상, 고학력, 비장애인, 이성애자, 성인 남성)이 중심적인 가치가 된다. 따라서 이 때의 남성은 모든 개인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비남성적 '남자가 아닌' 이라고보다, 이 사회의 중심가치(남성)에서 배제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저학력, 청소년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뜻한다.

공감 다른 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공감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의 생각으로 다른 이의 경험을 재단하는 것에 경계하며 온 몸을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보통은 정치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이 하는 거, 혹은 투표할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여성주의에서는 일상의 모든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공적인 영역만이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남성에게만 유효하다. 동성애자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사적인'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동성결혼의 합법화, 호주제의 폐지 등 정치적인 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문화 영화, 미술, 문학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생활양식, 윤리규범 등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인식하는 방식에서부터 누구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에까지 사람들 사이에 적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성애 남성과 여성간의 연애. 우리가 '연애'라고 했을 때 이성애만을 생각하게 되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연애'가 아닌 '이성애'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성애가 아닌 비이성애들도 '연애'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